

# 韓國經濟發展過程에 있어서 産業構造와 貿易構造와의 關係

全 應 烈\*

- I. 緒 論
- II. 經濟發展過程에 있어서의 産業構造의 變化
- III. 産業構造變化過程에 있어서 輸出入貿易構造의 變化
- IV. 結 論

## I. 緒 論

解放後 韓國經濟의 發展過程에서 産業構造와 貿易構造가 어떻게 變化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를 考察하기 위하여 于先 解放後 韓國經濟가 40年代, 50年代, 60年代, 70年代 및 80年代에 있어서 어떻게 發展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發展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다음에 이렇게 韓國經濟의 發展過程에서 産業構造가 各年代에 있어서 어떻게 變化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를 概觀하기 위하여, 첫째 (1) 農林水産業 (2) 鑛工業 (3)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 등으로 分類한 産業構造의 變化, 둘째 (1) 重工業關聯産業 (2) 輕工業關聯産業 (3) 傳統的 産業 등으로 分類한 産業構造의 變化, 셋째 (1) 輕工業 (2) 重化學工業으로 分類한 工業構造의 變化, 넷째 (1) 消費財 (2) 中間財 (3) 投資財 등으로 分類한 工業構造의 變化, 다섯째 主導成長業種別로 分類한 重化學工業構造의 變化, 여섯째 (1) 輸入代替産業 (2) 輸出産業으로 分類한 工業構造의 變化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렇게 産業構造의 變化過程에서 貿易構造가 各年代에 있어서 어떻게 變化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를 檢討하기 위하여 첫째 貿易變遷過程, 둘째 財貨 및 用役別 輸出入構造의 變化 셋째 輸出入額構造의 變化 넷째 輸出入依存構造의 變化 등을 考察한 後, 輸入構造의 變化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첫째 財源別 輸入構造의 變化 둘째 形態別 輸入構造의 變化 등을 概觀하고 끝으로 輸出構造의 變化의 모습을 알기 위하여 첫째 形態別 輸出構造의 變化 둘째 產品別 輸出構造의 變化 셋째 輸出의 各種 誘發效果構造의 變化 넷째 工產品類

\* 法經大學 經濟學科 教授

別 輸出構造의 變化 등을 檢討한다.

## II. 經濟發展過程에 있어서 產業構造의 變化

韓國經濟의 發展過程을 40年代, 50年代, 60年代, 70年代 및 80年代 등으로 區分하여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40年代 및 50年代를 經濟混亂期, 經濟再建期, 經濟安定期 등 3期로 나눌 수 있다.

經濟混亂期(1945年 8月~1953年 7月)를 다시 軍政 및 過政期와 政府樹立 및 動亂期로 나눌 수 있다.

軍政 및 過政期(1945年 8月~1948年 7月)에서는 生産萎縮과 產業構造의 不均衡 深化 및 惡性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韓國經濟는 심각한 混亂에 빠졌다. 그 當時 經濟政策은 食糧難의 解消와 生産活動 및 國內外 商品去來의 早速한 回復 등에 重點을 두고 外國援助는 食糧, 肥料, 衣類 및 醫藥品 등 주로 救護에 集中하였다. 그 結果 生必品의 供給不足 現象은 어느程度 解消하면서 國民經濟의 破綻 危機를 免하였다.

政府樹立 및 動亂期(1948年 8月~1953年 7月)에서는 政府가 經濟秩序의 確立과 安定基調의 構築에 盡力하였다. 한편 美國에서는 從來의 消極的인 救護援助에서 經濟再建援助로 轉換하였다. 그 結果 韓國經濟는 解放後 처음으로 通貨量이 減少되었고 物價騰貴가 鈍化되었으며 退藏되었던 財貨가 市場에 搬出되는 등 安定氣運이 造成되었다. 그러나 6·25動亂이 일어나 產業施設이 破壞되었으며 生産活動이 沈滯되었고 物價가 다시 騰貴하여 인플레이션이 再燃되었다.

經濟再建期(1953年 8月~1956年)에서는 政府는 戰爭中 破壞된 生産施設을 復舊하였고 惡性인플레이션을 收拾하는 등 緊急課題를 遂行하였다. 즉 政府는 財政·金融의 均衡, 單一換率의 策定, 自由企業의 原則, 對充資金運用의 原則 등을 實施하여 經濟再建을 서둘렀다.

經濟安定期(1957年~1961年)에서는 戰後의 復舊事業이 急速히 展開되었고 또 美國의 對韓援助가 本格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長期間 持續되어오던 惡性인플레이션이 收拾되어 通貨價値의 安定과 單一換率의 維持로 安定基調를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安定期의 末期인 1960년에 4·19學生革命, 1961년에 5·16軍事革命 등이 발발하여 다시 經濟的 混亂이 일어났다.

以上과 같이 韓國經濟는 解放後 40年代의 經濟的 混亂은 美國의 生必品中心의 救護援助로 收拾되어 經濟的 不安이 가시었고 50年代의 6·25動亂에서 惹起된 經濟的 破綻은 美國의 莫大한 經濟的 援助에 依存하여 收拾하면서 政府는 인플레이션 抑制와 失業對策과 같은 短期的 安定의 目標下에 戰災復舊와 經濟安定에 注力하였다.

60年代를 第1次 5個年計劃期와 第2次 5個年計劃期로 나눌 수 있다.

1次計劃期(1962年~1966年)는 經濟開發의 基本準備段階로서 먼저 農業生産力의 增大에 의

한 農家所得의 增加와 國民經濟構造의 不均衡의 是正, 電力 및 石炭 등 에너지源의 確保, 基幹 産業의 擴充 및 社會間接資本의 充足, 遊休資源의 活用, 雇傭의 增大, 國土의 保存 및 開發, 輸出增大를 주축으로 하는 國際收支의 改善 및 技術의 振興 등에 重點을 두었다. 즉 國內産業의 基盤構築에 重點을 두고 輸出을 最大限으로 增加시키는 同時에 機械類 등 施設財를 大量으로 導入하면서 基礎的인 原資材의 國內代替를 推進하여 消費財 및 原資材 輸入을 減少시키는데 注力하였다. 그 結果 國內生産能力의 擴大와 高度化를 基礎로 한 輸出能力이 着實히 培養되었다.

1次計劃을 통해서 시멘트, 肥料, 精油와 같은 輸入代替産業과 비스크스人絹糸를 비롯한 各種 化學纖維糸 등 第2次 中間財工業을 本格的으로 開發하는 段階에 들어갔다. 그러나 1次計劃期의 工業化는 아직 初期段階이므로 資本財와 中間財의 大部分은 輸入에 依存하였다. 1次計劃期에 年平均 成長率은 GNP 9.6%, 農林漁業 8.4%, 鑛工業 14.6%,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 8.8%로서 鑛工業이 經濟成長을 主導하였다.

2次計劃期(1967年~1971年)에서는 自立經濟를 確立하는 同時에 近代의 經濟基盤을 이룩하는 過程에서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輸出增大를 통하여 國民所得을 이룩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즉 食糧을 自給하는 한편 化學, 鐵鋼 및 機械工業의 建設을 통하여 工業高度化의 基盤을 擴充하였고 輸出增大와 輸入代替를 促進하여 國際收支를 改善하였으며 雇傭을 增大하는 同時에 人口增加를 抑制하였고 農家所得의 向上에 注力하였으며 低生産性を 克服하기 위한 技術의 增進을 期하는데 있었다.

그 結果 消費財工業部門이 擴大되는 同時에 化學, 鐵鋼 및 機械工業의 建設에 着手하여 重化學工業基盤을 構築하기 始作하였다. 즉 2次計劃을 통해서 주로 化學工業, 化學纖維 및 精油, 自動車, 電氣機器 등 輸入代替産業을 建設하는 同時에 纖維製品, 合板 등 輸出産業을 積極적으로 育成하였다.

2次計劃期에 年平均 成長率(經常價格)은 GNP 12.1%, 農林水産業 3.7%,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業 12.8% 등은 매우 낮은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鑛工業은 21.0%이란 높은 成長率을 記錄함으로써 經濟成長을 鑛工業이 主導하였다.

以上과 같이 韓國經濟는 50年代까지만 해도 美國의 經濟援助에 依存하였으나 60年代부터 美國援助가 激減하기 때문에 自立化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政府는 60年代부터 經濟開發을 위한 年次計劃을 樹立하고 그 開發戰略의 推進에 있어서 外資導入과 輸出擴大의 接近方法을 취하였다. 自立經濟는 經濟開發을 통해서만 追求할 수 있으며 經濟開發에 必要한 資本은 國內蓄積이 不足하기 때문에 外貨의 供給源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데 그 方法은 外資導入과 輸出增大이었다. 그 중에서도 輸出增大를 통한 外貨의 自力調達만이 매우 所望스럽기 때문에 1962년부터 始作된 經濟開發과 더불어 輸出을 戰略部門으로 選定하여 輸出主導의 經濟成長을

推進하게 되었다.

그 결과 韓國經濟는 60年代를 통하여 高度經濟成長의 持續, 産業構造의 高度化, 輸出의 增大, 國內貯蓄의 增加 그리고 農業開發의 推進과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등 經濟의 各部門에서 큰 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2次計劃期 後期에서는 只今까지의 量的 高度經濟成長 主導下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構造의 脆弱性을 是正하고 70年代의 安定的 經濟成長의 維持를 위한 基盤擴張에 注力하였으나 1969年 末부터 採擇된 緊縮政策, 元利金 償還 負擔의 過重에서 오는 企業의 不實化, 先進諸國에서의 國際收支改善을 위한 保護政策의 擡頭등 國內外與件의 變動에 따르는 景氣沈滯가 일어났으나 그 후 다시 景氣가 回復하였다.

70年代는 3次計劃期와 1977年~1981年期로 區分할 수 있다.

3次計劃期(1972年~1976年)에서는 成長, 安定, 均衡의 調和를 追求하면서 持續的인 輸出增大를 통한 自主經濟體制를 確立하는데 重點을 두고 있다. 즉 3次計劃의 基調는 成長, 安定, 均衡의 調和위에 農漁村經濟의 革新的 開發, 重化學工業의 建設 및 輸出增大 등의 目標를 樹立하였다.

3次計劃은 1.2次計劃을 통하여 工業化의 推進, 電力, 道路등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農業開發基盤의 構築과 輸出의 急激한 增大 등이고 특히 重化學工業建設, 企業體質 改善 및 國際競爭力 強化 등에 의하여 輸出産業을 育成한다.

1972년에 政府는 60年代의 高度經濟成長過程에서 派生된 企業財務構造의 惡化, 物價와 換率의 惡循環, 國際競爭力의 弱화, 私金融市場의 肥大 등 經濟構造의 隘路를 打開하여 安定的인 經濟成長의 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8.3緊急經濟措置를 斷行하였다. 私債의 凍結, 金利引下, 特別金融, 信用保證制度의 擴充, 産業合理化 및 財政運用의 効率化 등을 主要骨子로 하는 8.3緊急經濟措置는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 換率과 物價의 安定, 民間投資의 促進, 國際收支의 改善 등 短期的 成長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括目할만한 成果에도 不拘하고 韓國經濟는 資源問題의 深刻화와 이에 따른 主要物資價格의 引上壓力 등으로 인하여 安定的 成長을 위협하고 있다.

77年~81年期에서는 政府의 長期展望作成指針에 의하면 3次計劃에서 이룩된 發展의 基盤위에 物價安定, 民間貯蓄增大, 主穀自給을 비롯하여 資本財 등의 輸入代替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經濟發展過程에서 産業構造의 變化 推移를 보면 다음과 같다. 産業別 國民總生產 構成比는 經濟再建期에서 1953년에 國民總生產 8,435億원중 農林水産業은 3,974億원으로서 47.3%, 鑛工業은 606億원으로서 10.0%, 그 중 工業은 511億원으로서 8.9%,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3,855億원으로서 42.7%이던 것이 1956년에 國民總生產 9,422億원중 農林水産業은 4,125億원으로서 47.2%, 鑛工業은 952億원으로서 12.5%, 그 중 工業은



874億원으로서 11.3%,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4,345億원으로서 40.7%가 되어 農林水産業의 比率은 不變이었으나 鑛工業 특히 工業의 比率이 若干 增大하였는데 반하여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若干 減少하였다.

經濟安定期에서는 1957년에 國民總生産 10,144億원중 農林水産業은 4,502億원으로서 45.2%, 鑛工業은 1,044億원으로서 12.5% 그 중 工業은 947億원으로서 11.0%,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4,599億원으로서 42.3%이던 것이 1961년에 國民總生産 11,845億원중 農林水産業은 5,222億원으로서 40.2%, 鑛工業은 1,417億원으로서 15.2% 그 중 工業은 1,258億원으로서 13.4%,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5,205億원으로서 44.6%가 되어 農林水産業의 比率이 5%나 減少하였는데 반하여 鑛工業 및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의 比率이 多少 增大하였다. 50年代에서는 第1次産業의 比率이 약 7% 減少하였는데 반하여 第2次産業의 比率이 약 5% 增大하였으나 아직 鑛工業의 比重이 약 15%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年平均 成長率을 보면 國民總生産은 經濟再建期에 3.8%이던 것이 經濟安定期에 4.7%가 되어 多少 增加되었으며 農林水産業은 1.4%이던 것이 4.9%가 되어 3.5%나 伸張하였는데 반하여 鑛工業 특히 工業은 大幅 減少하였다. 그러나 50年代 經濟成長은 鑛工業 특히 工業에 의하여 主導하였다.

1次計劃期에서는 1962년에 國民總生産 12,210億원중 農林水産業은 4,922億원으로서 36.6%, 鑛工業은 1,617億원으로서 16.5% 그 중 工業은 1,423億원으로서 14.5%,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5,671億원으로서 46.9%이던 것이 1966년에 國民總生産 17,192億원중 農林水産業은 6,679億원으로서 35.4%, 鑛工業은 2,746億원으로서 20.1% 그 중 工業은 2,499億원으로서 18.5%,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7,767億원으로서 44.5%가 되어 第1次産業과 第3次産業의 比率이 多少 減少하였는데 반하여 鑛工業 특히 工業의 比率이 약 4% 增大되었다.

2次計劃期에서는 1967년에 國民總生産 18,530億원중 農林水産業은 6,348億원으로서 31.4%, 鑛工業은 3,340億원으로서 20.4% 그 중 工業은 3,068億원으로서 18.8%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8,842億원으로서 48.2%이던 것이 1971년에 國民總生産 28,285億원중 農林水産業은 7,485億원으로서 28.9%, 鑛工業은 6,904億원으로서 22.8% 그 중 工業은 6,592億원으로서 21.7%,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13,879億원으로서 48.3%가 되어 第1次産業의 比率은 若干 減少되었으나 第2次産業의 比率은 多少 增大되었다.

60年代의 年平均 成長率을 보면 國民總生産은 1次計劃期에 7.8%이던 것이 2次計劃期에 10.5%가 되어 약 3% 伸張되었으며 第1次産業은 5.3%이던 것이 2.5%가 되어 약 3% 減少되었는데 반하여 第2次産業은 14.2%이던 것이 20.3%가 되어 약 6%가 增大되었고 第3次産業은 8.4%이던 것이 12.3%가 되어 약 4% 上昇하였다. 60年代의 經濟成長은 鑛工業 특히 公업의

18%이란 높은 成長率에 의하여 誘導하였다.

3次計劃期에서는 1972년에 國民總生産 30,270億원 중 農林水産業은 7,710億원으로서 25.5%, 鑛工業은 7,960億원으로서 26.3%, 그 중 工業은 7,650億원으로서 25.3%,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14,600億원으로서 48.2%이던 것이 1976년에 國民總生産 43,510億원 중 農林水産業은 9,280億원으로서 21.3%, 鑛工業은 14,730億원으로서 33.9%, 그 중 工業은 14,330億원으로서 32.9%,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19,500億원으로서 44.8%가 되어 第1次産業 및 第3次産業의 比率이 약 4%씩 減少하였는데 반하여 第2次産業의 比率이 7% 增大하게 된다.

77年~81年期에서는 1977년에 國民總生産 48,290億원 중 農林水産業은 9,710億원으로서 20.1%, 鑛工業은 17,200億원으로서 35.6%, 그 중 工業은 16,770億원으로서 34.7%,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21,380億원으로서 44.3%이던 것이 1981년에 國民總生産 73,310億원 중 農林水産業은 11,670億원으로서 15.9%, 鑛工業은 31,450億원으로서 42.9%, 工業은 30,890億원으로서 42.1%,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30,190億원으로서 41.2%이 되어 農林水産業의 比率이 약 4%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의 比率이 약 3%씩 減少되는데 반하여 鑛工業의 比率이 약 7%, 工業의 比率은 약 8% 增大된다.

70年代의 年平均 成長을 보면 國民總生産은 3次計劃期에 9.0%이던 것이 77年~81年期에 11.0%가 되어 2%나 增大되고 있으며 第1次産業은 4.4%이던 것이 4.7%가 되어 若干 增加시켰으나 第3次産業은 7.1%이던 것이 9.1%가 되어 2%나 增大시켰는데 반하여 第2次産業은 變動이 없다. 70年代의 經濟成長도 亦是 工業에 의하여 主導하게 計劃하고 있다. 그리고 80年代에 가서는 工業의 比率이 40%以上 차지하게 되어 工業國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表 1. 産業別 國民總生産構造 變化推移(1970年不變價格)

單位: 10億원  
%

	經濟再建期		經濟安定期		1次計劃期		2次計劃期		3次計劃期		77-81期		年平均成長率					
	53 ~ 56	57 ~ 61	62 ~ 66	67 ~ 71	72 ~ 76	77 ~ 81	53 ~ 56	57 ~ 61	62 ~ 66	67 ~ 71	72 ~ 76	77 ~ 81	53	57	62	67	72	77
國民總生産	843.5 (100.0)	942.2 (100.0)	1,014.4 (100.0)	1,184.5 (100.0)	1,221.0 (100.0)	1,719.2 (100.0)	1,853.0 (100.0)	2,828.5 (100.0)	3,027 (100.0)	4,351 (100.0)	4,829 (100.0)	7,331 (100.0)	3.8	4.7	7.8	10.5	9.0	11.0
農村漁業	397.4 (47.3)	412.5 (47.2)	450.2 (45.2)	522.2 (40.2)	492.2 (36.6)	667.9 (35.4)	634.8 (31.4)	748.5 (28.9)	771 (25.5)	928 (21.3)	971 (20.1)	1,167 (15.9)	1.4	4.9	5.3	2.5	4.4	4.7
鑛工業	60.6 (10.0)	95.2 (12.5)	104.4 (12.5)	141.7 (15.2)	161.7 (16.5)	274.6 (20.1)	334.0 (20.4)	690.4 (22.8)	796 (26.3)	1,473 (33.9)	1,720 (35.6)	3,145 (42.9)	16.3	8.3	14.2	20.3	16.4	16.4
工業	51.1 (8.9)	87.4 (11.3)	94.7 (11.0)	125.8 (13.4)	142.3 (14.5)	249.9 (18.5)	306.8 (18.8)	659.2 (21.7)	765 (25.3)	1,433 (32.9)	1,677 (34.7)	3,089 (42.1)	19.6	7.6	14.8	21.5	16.8	16.6
社會間接資本 其他 서어비스	385.5 (42.7)	434.5 (40.7)	459.9 (42.3)	520.5 (44.6)	567.1 (46.9)	776.7 (44.5)	884.2 (48.2)	1,387.9 (48.3)	1,460 (48.2)	1,950 (44.8)	2,138 (44.3)	3,019 (41.2)	4.1	3.7	8.4	12.3	7.1	9.1

資料: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72. 經濟企劃院, 韓國經濟의 長期展望作成指針, 1973.

註: 1972年~1981年의 數値는 計劃值임.

다음에 韓國產業構造를 重工業關聯産業인 (1)鐵鋼—機械 (2)窯業·土石—建設, 輕工業關聯産業인 (3)石油化學—纖維 및 化學加工消費財 (4)農林水産—食料品 및 傳統的 消費財 등 4個系列로 分類하여 보면 經濟成長을 主導한 産業은 40年代 및 50年代에서 (4)系列産業이었으나 60年代 前期에서 (4)系列産業이 發達하여 (3)系列産業이 誘發되었고 70年代에 高速度道路建設로 인하여 (2)系列産業과 製鐵과 造船業이 發達하여 勞動集約的인 (1)系列産業이 誘發되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前期에 勞動集約的인 (1)系列産業의 發達로 인하여 內需用 資本集約的인 (1)系列産業이 發達하게 된다.

韓國產業構造를 資本이 蓄積되는 Stock 概念에 屬하는 産業과 年年 消費되는 Flow 概念에 屬하는 産業으로 分類하여 보자. Stock 概念에 屬하는 産業에는 (1)耐久消費財産業 (2)原料·燃料産業 (3)耐久資本財産業 (4)社會間接資本 등이 있다.

(1) 耐久消費財産業은 乘用車, 冷藏庫, 洗濯機, TV 등을 製造하는 産業인데 이 産業의 成長率은 耐久消費財가 一般家庭에 普及되는 比率의 크기에 의하여 決定된다.

(2) 原料·燃料産業은 모든 産業의 生産活動을 할 수 있도록 原材料 및 燃料등을 供給하는 鐵鋼, 非鐵金屬, 시멘트 其他 建材類 등을 生産하는 基礎産業과 電力, 石油 등을 生産하는 에너지産業인데 이 産業의 發展은 重化學工業의 投資率에 의하여 左右된다.

(3) 耐久資本財産業은 各種 産業機械, 工作機械, 運輸機械 및 電子計算機 등을 生産하는 産業인데 이 産業의 成長率은 各種 産業이 發達하여 工業化가 進展됨에 따라 增加한다.

(4) 社會間接資本은 住宅, 上下水道, 道路, 鐵道 및 港灣 등 諸施設에 대한 投資率이 增大함에 따라 擴大된다. 社會間接資本은 工業化過程에서 不可避하게 擴充된다.

以上 Stock 關聯産業이 發達하면 蓄積量이 增加하여 國民所得이 增大하게 되므로 國民經濟가 低國民所得段階에서 高國民所得段階으로 移行함에 따라 製造業이 低價商品生産段階에서 高價商品生産段階으로 轉換하게 되고 그 結果 生産設備가 單純設備機械體系에서 高度設備機械體系으로 發展하여 經濟構造가 高度化하게 된다.

Flow 概念에 屬하는 産業에는 (1)商業 등 各種 서어비스産業, (2)石炭 등 一部 에너지産業 (3)飲食品, 纖維品, 紙類 및 化學品과 雜貨 등 非耐久消費財産業 등이 있다.

Flow 關聯産業의 成長率은 需要側面에서는 國民所得의 增加速度에 따라 決定되고 供給側面에서는 Stock 關聯産業의 增加率에 의하여 左右되나 主導的인 것은 國民所得의 成長率에 의하여 支配된다.

韓國의 經濟成長을 主導해 온 産業은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對美經濟援助에 의한 Flow 關聯産業中 援助物資를 賣買하였던 서어비스産業과 飲食品 및 纖維品 등을 生産했던 非耐久消費財産業 등이었다.

60年代 1次計劃期에서는 시멘트 및 精油 등의 輸入代替産業을 中心으로 하는 Stock 關聯産業

中 原料・燃料産業과 肥料 및 비스코스人絹糸를 비롯한 各種 化纖糸 등 輸入代替産業을 中心으로 하는 Flow 關聯産業中 非耐久消費財産業이었고 2次計劃期에서는 自動車 등의 輸入代替産業을 中心으로 하는 Stock 關聯産業中 耐久消費財産業과 電氣機器 등의 輸入代替産業인 耐久資本財産業, 纖維製品과 合板 등 輸出産業인 Flow 關聯産業中 非耐久消費財産業 및 高速道路建設을 中心으로 하는 Stock 關聯産業中 社會間接資本 등이었다. 다음에 3次計劃期에서는 Stock 關聯産業中 綜合製鐵 建設을 中心으로 하는 鐵鋼輸入代替産業인 原料・燃料産業과 造船業擴張, 電子製造業 등 輸出産業인 耐久資本財産業 등이 될 것이다.

80年代에서는 Stock 關聯産業中 船舶 및 電氣・電子機器 등 輸出産業인 耐久資本財産業과 耐久資本財輸出産業을 支援해주는 鐵鋼, 非鐵金屬 등 內需産業과 石油波動에 對備하기 위한 電力 및 石炭 등 에너지産業 등 原料・燃料産業 및 高所得에서 派生하는 餘暇産業을 中心으로 하는 Flow 關聯産業인 서어비스産業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經濟構造가 經濟發展過程에서 (1) 最終需要總額에 대한 消費需要와 投資需要와의 比率 變化 (2) 各 産業의 投資需要構成比의 變化 (3) 技術上的 變化 등 3個要因에 의하여 變化하고 있다.

첫째 變化는 40年代 및 50年代에서 주로 國內 民間消費支出에 의하여 輸入消費財에 대한 消費需要가 增大하였으나 60年代에서는 주로 輕工業施設 投資需要와 輸出消費支出에 의한 消費需要가 增加하였으나 70年代에서는 주로 輸出産業인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建設에 대한 投資需要가 增大하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주로 輸入代替産業인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建設에 대한 投資需要가 增加하게 될 것이다.

둘째 變化는 40年代 및 50年代에서 Flow 關聯産業中 輸入代替産業인 生必品爲主의 非耐久消費財産業에 대한 投資需要가 誘發되었으나 60年代에서는 주로 輸出産業인 非耐久消費財産業에 대한 投資需要가 誘發되었고 70年代에서는 주로 Stock 關聯産業中 輸出産業인 勞動集約的인 耐久資本財産業에 대한 投資需要가 誘發되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주로 輸入代替産業인 資本集約的인 耐久資本財産業에 대한 投資需要가 誘發될 것이다.

세째 變化는 첫째 變化에 따라 商品製造過程에서 原材料, 資本財 및 勞動力 등의 結合方法이 變化하고 그 結果 投入産業構造가 變化하므로 生産誘發係數가 變化하므로 生産誘發係數가 變化한다.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輸入代替産業인 生必品爲主의 消費財産業이 發達하였으므로 原材料와 勞動力 등의 係數가 높았으나 60年代에서는 輸出産業인 勞動集約的인 輕工業이 發展하였으므로 亦是 原資材와 勞動力 등의 係數가 높았으며 70年代에서는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이 發達하고 있으므로 加工度가 높은 中間財와 勞動力 등의 係數가 높아지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內需用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이 發展하므로 中間財와 資本財 등의 係數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輕工業 및 重化學工業構造의 變化 趨勢를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의 工業化는 1次計劃期부터 始作하여 첫段階에서는 消費需要와 結付되는 消費財를 生産하는 輕工業이 發達하고 둘째段階에서는 消費財 生産에 必要한 中間財 및 資本財를 生産하는 重化學工業이 發達한다.

重化學工業 대 輕工業의 比率은 1960년에 工業生産 1,220億원중 重化學工業生産은 159億원으로서 13.0%인데 대하여 輕工業生産은 1,061億원으로서 87.0%이던 것이 1965년에 工業生産 2,134億원중 重化學工業生産은 491億원으로서 23.0%인데 대하여 輕工業生産은 1,643億원으로서 77.0%가 되어 重化學工業生産 比率이 10% 增大하였는데 반하여 輕工業生産 比率이 그만큼 減少하였으며 1970년에서 工業生産 5,600億원중 重化學工業生産은 1,736億원으로서 31.0%인데 대하여 輕工業生産은 3,864億원으로서 69.0%가 되어 8%만큼 重化學工業生産의 比重이 增加하였는데 반하여 輕工業生産의 比重이 그만큼 減少하였다.

60年代에서 消費財 生産에 必要한 中間財工業인 化學工業은 消費財工業의 發展으로 인하여 急激하게 發達하여 1960년에 41億원이던 것이 1970년에 935億원이 되어 약 23배에 達하였는데 代해서 플란트 및 資本財는 對外依存이 높았기 때문에 金屬工業과 機械工業生産이 1960년에 43億원과 75億원이던 것이 1970년에 202億원과 599億원이 되어 약 5배와 8배밖에 되지 못하였다.

消費財工業중 飲食品工業生産은 1960년에 407億원으로서 33.4% 차지하던 것이 1965년에 538億원으로서 25.3%가 되고 1970년에 1,148億원으로서 20.5%가 되어 그 構造比率이 減少하였으며 纖維工業과 其他 工業生産은 1960년에 244億원으로서 20%와 410億원으로서 33.6%이던 것이 1965년에는 335億원으로서 15.7%와 770億원으로서 36.1%가 되고 1970년에는 823億원으로서 14.7%와 1,893億원으로서 33.8%가 되어 漸減現象을 나타냈다.

70年代에서 1970년에 工業生産 5,600億원중 重化學工業生産은 1,736億원으로서 31.0%인데 대하여 輕工業生産은 3,864億원으로서 69.0%이던 것이 1975년에 工業生産 12,360億원중 重化學工業生産은 4,895億원으로서 39.6%인데 대하여 輕工業生産은 7,465億원으로서 60.4%가 되고 1981년에는 工業生産 30,890億원중 重化學工業生産은 15,754億원으로서 51.0%인데 대하여 輕工業生産은 15,136億원으로서 49.0%가 되어 10年間 重化學工業生産이 飛躍적으로 增加하므로써 1981년에는 重化學工業生産과 輕工業生産과의 比率이 거의 같아지게 된다.

重化學工業중 1970년에 化學工業生産은 935億원으로서 16.7%, 金屬工業生産은 202億원으로서 3.6%, 機械工業生産은 599億원으로서 10.7%이던 것이 1975년에 化學工業生産은 2,373億원으로서 19.2%, 金屬工業生産은 1,001億원으로서 8.1%, 機械工業生産은 1,521億원으로서 12.3%가 되고 1981년에 化學工業生産은 5,622億원으로서 18.2%, 金屬工業生産은 4,016億원으로서 13.0%, 機械工業生産은 6,116億원으로서 19.8%가 되어 化學工業生産의 比率이 減少하는데 반하여 金屬工業生産과 機械工業生産의 比率이 增加한다.

輕工業生産중 1970년에 飲食品工業生産은 1,148億원으로서 20.5% 纖維工業生産은 823億원으로서 14.7%, 其他 工業生産은 1,893億원으로서 33.8%이던 것이 1975년에 飲食品工業生産은 2,435億원으로서 19.7%, 纖維工業生産은 2,744億원으로서 22.2%, 其他 工業生産은 2,286億원으로서 18.5%가 되고 1981년에 飲食品工業生産은 5,190億원으로서 16.8%, 纖維工業生産은 4,911億원으로서 15.9%, 其他 工業生産은 5,035億원으로서 16.3%가 되어 諸工業生産의 比率이 一律의으로 低下되고 있다.

工業構造를 消費財, 中間財, 投資財 등 3部門으로 分類하여 그 構成比의 變化를 보면 1953년에 工業生産 511億원중 消費財生産은 373億원으로서 73.1%, 中間財生産은 166億원으로서 8.5%, 投資財生産은 53億원으로서 10.3%이던 것이 1955년에 工業生産 746億원중 消費財生産은 535億원으로서 71.8%, 中間財生産은 135億원으로서 18.1%, 投資財生産은 76億원으로서 10.2%가 되었으며 1960년에 工業生産 1,220億원중 消費財生産은 843億원으로서 69.1%, 中間財生産은 224億원으로서 18.4%, 投資財生産은 153億원으로서 12.5%가 되어 50年代에서는 消費財生産의 比率이 低下했는데 반하여 中間財와 投資財生産의 比率이 增加하였고 工業成長은 消費財工業에 의하여 主導하였다.

1965년에 工業生産 2,134億원중 消費財生産은 1,323億원으로서 62.0%, 中間財生産은 495億원으로서 23.2%, 投資財生産은 316億원으로 14.8%이던 것이 1970년에 工業生産 5,600億

表 2. 輕工業 및 重化學工業構造 變化推移 (1970年 不變價格)

單位: 10億원  
%

項 目	1960	1965	1970	1975	1981
工 業	122.0 (100.0)	213.4 (100.0)	560.0 (100.0)	1,236.0 (100.0)	3,089.0 (100.0)
重 化 學 工 業	15.9 (13.0)	49.1 (23.0)	173.6 (31.0)	489.5 (39.6)	1,575.4 (51.0)
化 學 工 業	4.1 (3.4)	19.4 (9.1)	93.5 (16.7)	237.3 (19.2)	562.2 (18.2)
金 屬 工 業	4.3 (3.5)	9.0 (4.2)	20.2 (3.6)	100.1 (8.1)	401.6 (13.0)
機 械 工 業	7.5 (6.1)	20.7 (9.7)	59.9 (10.7)	152.1 (12.3)	611.6 (19.8)
輕 工 業	106.1 (87.0)	164.3 (77.0)	386.4 (69.0)	746.5 (60.4)	1,513.6 (49.0)
飲 食 品 工 業	40.7 (33.4)	53.8 (25.2)	114.8 (20.5)	243.5 (19.7)	519.0 (16.8)
纖 維 工 業	24.4 (20.0)	33.5 (15.7)	82.3 (14.7)	274.4 (22.2)	491.1 (15.9)
其 他 工 業	41.0 (33.6)	77.0 (36.1)	189.3 (33.8)	228.6 (18.5)	503.5 (16.3)

資料: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72.

經濟企劃院, 韓國經濟의 長期展望作成指針, 1933.

원중 消費財生産은 3,556億원으로서 63.5%, 中間財生産은 1,238億원으로서 22.1%, 投資財生産은 806億원으로서 14.4%가 되어 60年代에서 消費財生産의 比率이 減少하였는데 반하여 中間財 및 投資財生産의 比率이 增大하였으며 工業成長은 50年代와 같이 消費財工業에 의하여 誘導하였다.

1971년에 工業生産 6,592億원중 消費財生産은 3,579億원으로서 54.3%, 中間財生産은 1,437億원으로서 21.8%, 投資財生産은 1,576億원으로서 23.9%가 되어 中間財와 投資財生産의 合計 比率이 消費財生産의 比率에 接近하고 있으므로 工業構造가 高度化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造船, 電氣機器 및 機械類 등 重工業의 基盤이 擴大 強化되어 投資財生産의 比重이 中間財生産의 比重보다 上廻하고 있어 70年代에서는 投資財生産이 크게 增加하게 될 것이다.

表 3. 財貨別 工業構造 變化推移 (1970年 不變價格)

單位: 10億원  
%

	1953	1955	1960	1965	1970	1971
工 業	51.1 (100.0)	74.6 (100.0)	122.0 (100.0)	213.4 (100.0)	560.0 (100.0)	659.2 (100.0)
消 費 財	37.3 (73.1)	53.5 (71.8)	84.3 (69.1)	132.3 (62.0)	355.6 (63.5)	357.9 (54.3)
中 間 財	8.5 (16.6)	13.5 (18.1)	22.4 (18.4)	49.5 (23.2)	123.8 (22.1)	143.7 (21.8)
投 資 財	5.3 (10.3)	7.6 (10.2)	15.3 (12.5)	31.6 (14.8)	80.6 (14.4)	157.6 (23.9)

資料: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72.

重化學工業中 主導成長業種別 構造의 變化를 보면 1960年을 100.0으로 하는 경우 工業은 1965년에 약 1.7배이던 것이 1970년에는 5.4배가 되고 1971년에는 5.4배가 되었는데 대하여 石油 石炭製品은 1965년에 3.7배이던 것이 1970년에 12.6배가 되고 1971년에 37배가 되어 가장 成長이 빠르며 機械類는 1965년에 2배이던 것이 1970년에 25.6배가 되고 1971년에 23.9배가 되어 둘째로 成長이 빠르고 電氣機器는 1965년에 3배이던 것이 1970년에 10.1배가 되고 1971년에 21.4배가 되어 셋째로 成長이 빠르고 다음에는 化學 및 化學製品이 1971년에 13.8배 끝으로 運送用 機器가 9.5배로 各各 成長이 빠르다.

끝으로 輸入代替産業 및 輸出産業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자. 韓國工業은 低賃金の 寄與度에 의하여 工業化過程이 進行되고 있으며 于先 內需産業으로 輸入代替産業이 發展하였다가 이 內需産業이 輸出産業으로 轉換하면서 他産業의 發展을 誘發시키는 등 즉 「內需가 生産을 誘發하며 이 生産이 輸出을 誘發하고 輸出이 投資를 誘發하는」 등 高度化 過程을 展開하였다.

50年代 後半에서는 50年代 前半까지의 輸入消費財 刺戟에 의하여 內需消費財産業이 輸入代替産業으로 登場하여 60年代 初期까지 消費財內需産業의 第1段階인 輸入代替化 過程을 거쳐 60

表 4. 重化學工業中 主導成長業種 變化推移 (1970年 不變價格)

單位：%

	1953	1955	1960	1965	1970	1971
工 業	12.8	38.7	100.0	173.9	537.9	540.3
化學 및 化學製品	16.3	36.5	100.0	206.2	932.9	1,375.4
石 油 石 炭 製 品	6.2	31.1	100.0	374.5	1,257.3	3,704.1
機 械 類	37.8	53.3	100.0	202.7	256.4	239.4
電 氣 機 器	11.7	16.8	100.0	299.4	1,010.5	2,144.9
運 送 用 機 器	40.1	67.0	100.0	292.6	961.9	953.7

資料：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72.

年代 中期부터 第2段階인 內需充足過程을 經由하여 60年代 後期부터 第3段階인 輸出産業化過程이 完結되었다. 第1段階인 消費財內需産業化過程에서는 未熟練 勞動力을 利用하는 勞動集約的인 小規模 産業形態를 취하였으나 第2段階인 消費財內需充足段階에서는 熟練勞動力을 使用하면서 生産施設을 擴張하여 中規模 産業形態로 發展하였다. 第1.2段階에서 消費財內需産業指向的인 工業化段階에서는 相對的으로 低賃金이 資本不足을 카바하였으므로 中小企業體制가 中心이었다. 第3段階인 輸出産業化段階에서는 加工度가 높은 消費財를 生産하여 輸出하므로 高熟練勞動力을 使用하면서 大單位 現代施設을 하였으므로 大規模 勞動集約的인 産業形態로 轉換하였다. 第3段階인 消費財 國際競爭指向的인 工業化段階에서는 低賃金이 低生産性을 카바하여 國際優位性을 維持하면서 勞動集約的인 在來內需産業이 大企業化할 뿐만 아니라 外國 資本이 國內에 進出하여 保稅加工, 合作 또는 直接投資形態의 企業化하여 國際競爭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60年代 中期에 消費財産業이 第2段階인 內需充足段階에서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이 輸入 代替産業으로 登場하여 60年代 後期에 이것이 內需産業化過程이 進行하였으며 70年代 初期에서는 一部 重化學工業製品이 輸出産業으로 轉換하고 있으며 70年代 中期에서는 大單位 現代 生産施設을 갖춘 輸出産業化로 轉換하게 될 것이다. 70年代 中期부터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이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을 基盤으로 發端하여 70年代 後期에서는 內需産業化하게 되며 80年代 初期에서는 그 一部가 輸出産業化하게 될 것이다.

現代 推進中에 있는 大單位 精油 및 石油化學工場, 大單位 造船所, 非鐵金屬製鍊所, 鐵鋼工場, 綜合機械工場, 大單位 肥料工場 등을 비롯하여 各種 重化學工業을 內外需要 目標로 國際規模를 갖추면서 從前의 國內市場을 對象으로 하는 輸入代替産業型에서 輸出産業型으로 轉換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重化學工業의 大單位 施設에 따라 生産財 및 資本財生産部門의 生産基盤이 強化하면 前後方 連鎖效果를 통하여 新規 聯關産業이 發展하여 産業體質이 近代化되어 工業構造



가 高度化될 뿐만 아니라 長期的으로 原價引下가 持續되므로서 國際競爭力이 強化될 것이다. 그러나 石油를 爲始하여 資源戰爭이 일어나고 있는 國際情勢下에서는 資源消費的인 重化學工業은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을 輸出産業으로 轉換시키는데 支援하는 內需範圍內에서 育成시켜야만 한다.

知識集約的 産業은 70年代 末期부터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 推進段階에서 産業技術을 開發하는 同時에 資源節約을 圖謀하기 위하여 發端하고 80年代에서는 知識 乃至 情報를 媒介로 하여 産業體制가 單調로운 業種 爲始의 産業活動인 單一機能産業體制에서 各種 産業活動을 하여 業種 相互間 補充을 하는 複合機能産業體制으로 移行하게 될 것이다.

知識集約的 産業은 새로운 製品,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시스템 등을 積極的으로 開發하는 産業이다. 이 産業의 發端은 從前의 原材料, 生産技術, 生産方法에 立脚한 既成産業의 生産이 相對的으로 過剩狀態가 되어 生産第一主義가 終末을 告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科學과 새로운 技術에 立脚하여 既存産業 테두리內에서 새로운 社會的 機能을 發見하여 그 새로운 機能에 의한 새로운 欲望과 새로운 需要를 創造하지 않으면 아니됨으로 새로운 組織을 創造하게 된다. 이 새로운 組織은 새로운 型의 産業을 發展시키는데 이 새로운 型의 産業은 시스템의 크기에 의하여 企業規模가 多樣化한 (1)시스템 가이드型, 專門企業과 같은 知識産業의 性格이 강한 專門그룹化한 (2)시스템 開發型, 比較的 技術의 폭이 좁으나 多方面으로 마케팅을 展開하는 企業을 그룹化한 (3)專門多方面 展開型 등 3個産業 그룹을 形成하게 될 것이다. 以上과 같이 韓國의 産業構造는 주로 40年代에 農業, 50年代에 農工業, 60年代에 輕工業, 70年代에 重化學工業, 80年代에 知識産業으로 變遷하게 될 것이다.

現在 韓國은 勞動力 豊富, 資源 및 資本 不足 등 諸條件下에 雇傭 및 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重化學工業의 優先順位를 勞動集約的, 資本 및 資源節約的인 重化學工業을 選定하여야 한다. 그 代表的인 重化學製品는 船舶, 電子製品 및 精密機械 등이다. 이들 重化學工業은 勞動集約的인 産業이기 때문에 雇傭效果가 높을 뿐만 아니라 迂廻度가 높은 加工産業이기 때문에 附加價値가 높아 所得이 增大되는 同時에 에너지나 資源消費가 적으며 公害 發生憂慮가 없는 産業이다. 그러나 石油化學 및 소다灰와 같은 化學工業과 銅, 알루미늄과 같은 非鐵金屬工業은 國內資源 活用이나 또는 聯關産業에 대한 原料 供給이나 國防産業 需要 및 輸出産業 需要의 限界를 넘어 輸出産業으로 大單位化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이들 工業은 大規模 裝置産業이기 때문에 外資導入의 加重을 가져오고 輸入原料 消費集中的 産業이기 때문에 原料의 對外依存이 提高될 뿐만 아니라 雇傭과 附加價値 및 國際收支效果가 없을 뿐더러 最近 資源의 民族主義가 強化되고 있으므로 輸入原料 價格이 繼續上昇하는 同時에 現在 加工度化率이 急速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資源과 에너지物資의 確保에 대하여 不利한 韓國에서는 「輸出을 目標」로 資源 및 에너지消費集中型 및 公害集中型的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을 推進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다. 그러므로 韓國에서는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을 輸出主導産業으로 發展시켜야 하고 輸入資源消費集中型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은 內需用 範圍內에서 育成시켜야 한다.

### Ⅲ. 産業構造變化過程에 있어서 輸出入貿易構造의 變化

上記와 같이 産業構造의 變遷過程에서 輸出入貿易構造의 變化를 살펴보자.

解放後 韓國貿易의 變遷過程을 보면 對外貿易은 軍政·過政을 거치는 동안 輸入貿易을 中心으로 한 政府間 貿易爲主이었으며 一部 民間貿易은 「바타」制 貿易形態이었다. 40年代 韓國輸出貿易의 大宗品은 水産物과 鑛産物이었으며 한편 輸出과는 比較도 안될 만큼 規模가 컸던 輸入貿易은 救護物資인 食料品 및 消費用 完製品이었다.

1646年の 輸出貿易은 不過 354萬弗이었던 것이 1950년에는 一躍 1,266萬弗로 增大되었으나 6·25動亂이 일어나자 輸出貿易은 다시 停滯되었고 輸入貿易은 生必品이 中心이었다. 50年代를 통하여 輸出貿易規模는 1953년에 3,960萬弗, 1957년에 2,220萬弗이던 것이 1960년에는 3,283萬弗인데 대하여 輸入貿易規模는 1950년에 1,091萬弗, 1953년에 34,540萬弗, 1957년에 44,217萬弗이던 것이 1960년에는 34,353萬弗이 되어 약 10倍나 入超가 되고 있으며 輸入貿易規模의 70~80%는 援助輸入 그 50%는 政府輸入이었다.

그 當時 貿易에서는 輸出보다 輸入에 置重하였으며 輸入에 있어서도 民間貿易보다 支拂手段을 確保한 政府貿易이 中心이었다. 50年代의 貿易商品構造를 보면 輸出商品으로서는 魚介類, 海苔 및 寒天 등 水産物과 重石 및 黑鉛, 鐵鑛石 등 鑛産物, 生糸 및 人蔘 등 農産物 등 特産物爲主 輸出型이었고 輸入商品으로서는 穀物 및 原糖 등 食料品, 抗生劑를 비롯한 醫藥品, 織物 및 衣類 등 生必品 등등 最終消費財爲主 輸入型이었다.

그러나 1955年을 境界로 하여 戰禍가 어느程度 回復되자 産業施設을 復舊 再建됨에 따라 原棉, 有煙炭, 石油類, 肥料 및 纖維, 機械 등을 비롯한 原資材 및 施設財 등의 輸入比重이 急增하게 되므로 從前의 最終消費財 輸入型에서 原資材 및 資本財輸入型으로 轉換하였다. 50年代의 貿易은 輸出貿易보다 輸入貿易爲主이고 輸入財源의 거의 80%가 援助資金으로 充當하였다. 그러나 1957年을 「피크」로 美國의 對韓援助가 急減됨에 따라 輸入을 위하여 輸出을 增大 시키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60年代의 韓國貿易은 50年代의 輸入爲主貿易型에서 輸出主導貿易型으로 轉換됨에 따라 輸入貿易은 輸出貿易을 增大시키기 위한 手段이 되었다. 그리고 60年代 初期까지만해도 鑛水産物 등 特産品爲主의 輸出商品構造에서 1963年을 境界로 하여 消費財 등 工業製品 中心의 輸出 商品構造으로 轉換하였다.

60年代의 10年間 韓國 輸出貿易은 年平均 40%를 上廻하는 높은 伸張率을 實現하였으며

1960년에 3,283萬弗, 1965년에 17,508萬弗이던 것이 1970년에 83,519萬弗로 輸出이 急增하여 輸出主導型 經濟로 變貌하게 되었다. 1962년부터 始作된 經濟開發計劃은 韓國經濟의 援助依存 經濟에서 脫皮하기 위하여 開發計劃을 推進하는데 必要한 外貨를 輸出에 의하여 調達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政府는 60年代부터 國民經濟의 開發戰略을 輸出主導의 整備를 推進하면서 輸出第一主義를 취하게 되었다.

1962年 3월에 輸出振興法을 公布하여 輸出品 製造用原料 輸入에 대한 特惠措置, 海外貿易 活動의 保障, 輸出實績에 의한 輸入許可의 制限 強化, 貿易金融 등을 法制化하였으며 1964年 부터는 輸出振興綜合施策을 每年 마련함으로써 輸出振興策을 보다 組織的으로 體系化하였으며 또 1964年 5월에는 從前의 固定換率制下에 直接的 輸出支援으로서 單一變動換率制로 轉換함으로써 外換市場의 價格機構를 통하여 元貨의 對外價値를 實勢에 符合시키는 등 間接的 支援을 하여 輸出增進을 圖謀하였다. 그 結果 1964년에는 輸出貿易은 1億弗을 超過하였으며 1969년에는 6億弗을 超過하여 60年代 輸出貿易은 量的으로 增大하였을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도 從前의 土產品中心의 第1次產品貿易에서 工產品中心의 加工貿易으로 轉換하였다.

한편, 60年代의 輸入貿易에서도 50年代의 消費財의 一般的인 抑制政策에서 消費財보다 生産財, 中間財보다 原資材 輸入을 指向하는 選別抑制政策으로 轉換하여 50年代의 消費財 輸入貿易에서 施設財 또는 原資材 輸入貿易으로 移行하였다.

그러나 貿易 自由化를 指向하는 世界的 趨勢에 따라 國民經濟를 世界에 開放하여 國際競爭力을 強化하므로써 高次元의 合理性을 追求하기 위하여 1969년에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轉換하여 貿易의 自由化를 擴大하였다. 60年代에 韓國貿易은 加工的 輸出貿易을 中心으로 推進했기 때문에 輸出이 量的으로 質的으로 크게 發展하였으나 原資材나 施設財의 國產化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輸出規模가 增大함에 따라 外貨獲得率이 減少하면서 入超가 累積하여 國際收支가 惡化되었다.

70年代 韓國貿易은 앞으로 80年代初의 1千弗 所得과 1百億弗의 輸出目標 達成을 위하여 輸出主導型 開發政策이 繼續 推進되어야 하며 특히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 強化, 外貨獲得率 提高 등 支援體制의 持續的인 補強을 위해서 輸出產業 高度化政策에 따라 重化學工業을 建設하여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을 增大시켜야 하고 國際競爭力 強化의 基盤이 되는 經濟安定의 持續을 통하여 國際景氣波動으로 부터의 오염을 最大限으로 阻止하여야 하고 그리고 工產品爲主의 輸出에 따라 原資材의 輸入이 增加하므로 原資材 確保問題와 더불어 原資材의 國產化를 促進시키며 아울러 資源節約政策을 模索하여야 한다.

1970年~72年 輸出의 國民經濟에 대한 寄與度를 보면 輸出은 1.75배에 가까운 生産增大를 誘發하였고 65%에 該當하는 附加價値를 增加시켰으며 總產出額과 國內總生産에 대한 輸出寄與率은 各各 18%와 10.9%이었다.

70年代의 輸出入貿易을 보면 輸出은 1970년에 83,519萬弗이던 것이 1971년에는 106,761萬弗, 1972년에는 162,410萬弗이 되어 10億弗의 輸出高地를 占領하였으며 한편 輸入은 1970년에 198,397萬弗, 1971년에는 239,432萬弗이던 것이 1972년에는 252,200萬弗이 되어 如前히 輸入이 增大되고 있다.

貿易構造의 變化中 于先 財貨 및 用役 輸出入構造의 變化 推移를 보면 經濟再建期에서 1953년에 輸出中 商品과 用役과의 比率은 75.8대 24.2이던 것이 1956년에는 71.3대 28.7이 되어 商品 輸出이 相對的으로 減少되고 用役輸出이 相對的으로 增大되었는데 그 原因은 政府用役이 增加하였기 때문이다. 經濟安定期에서 1957년에 그 比率이 55.7대 44.3이던 것이 1961년에는 36.5대 63.5가 되어 商品輸出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減少하였는데 반하여 用役輸出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增大하였다. 그 原因은 政府用役 輸出이 크게 늘어나 用役輸出이 增加하였기 때문이다. 1次計劃期에서 1962년에 그 比率이 42.1대 57.9이던 것이 1966년에 61.1대 33.9가 되었는데 그 期間 政府用役輸出이 增加하였으나 商品輸出이 크게 伸張하여 商品輸出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增大하였다. 2次計劃期에서 1967년에 그 比率이 64.6대 35.4이던 것이 1971년에 79.6대 20.4가 되어 商品輸出이 크게 增加되므로써 그 比率이 相對的으로 增大하였는데 반하여 用役輸出의 比率이 減少하였다. 以上과 같이 1953년에 商品 대 用役의 比率이 75.8대 24.2 이던 것이 1971년에는 79.6대 20.4가 되어 약 4%의 商品輸出의 比率이 增大하였는데 반하여 用役輸入이 減少하였다.

財貨 및 用役 輸入構造 變化 趨勢를 보면 經濟再建期에서 1953년에 輸入中 商品 대 用役의 比率은 98.2 대 1.8이던 것이 1956년에는 96.5 대 3.5가 되어 用役輸入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若干 增大하였으며 經濟安定期에서 1957년에 그 比率이 94.8 대 5.2이던 것이 1961년에는 그 比率이 90.4 대 9.6가 되어 用役輸入의 比率이 前期보다 약 倍나 增加하였고 1次計劃에서 1962년에 그 比率이 94.0 대 6.0이던 것이 1966년에는 그 比率이 94.9 대 5.1가 되어 商品輸入이 增加함에 따라 그 比率이 上昇한데 반하여 用役輸入은 減少하였다. 2次計劃期에서 1967년에 그 比率이 94.1 대 5.9이던 것이 1971년에는 94.2 대 5.8이 되어 前期와 같은 比重을 차지하였다. 以上과같이 1953년에 商品輸入 대 用役輸入의 比率이 98.2 대 1.8이던 것이 1971년에는 그 比率이 94.2 대 5.8이 되어 4%나 商品輸入의 比重이 減少되는데 반하여 用役輸入이 그만큼 增大되었다.

앞으로 計劃値를 보면 3次計劃期에서 1972년에 商品輸出 대 用役輸出의 比率은 74.8 대 25.2이던 것이 1976에는 83.8 대 16.2가 되어 商品輸出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약 9%나 增加하는데 반하여 用役輸出은 減少되며 77年~81期에서 1977년에 그 比率은 81.5 대 18.5이던 것이 1981년에는 87.0 대 13.0이 되어 商品輸出이 약 6% 增大하는데 반하여 用役輸出이 減少하게 된다. 70年代에서 1972년에 그 比率이 74.8 대 25.2이던 것이 1981년에는 87.0 대

13.0이 되어 商品輸出이 약 12%나 크게 上昇하는데 반하여 用役輸出이 그만큼 低下하게 된다.

한편 3次計劃期에서 1972년에 商品輸入 對 用役輸入의 比重은 81.6 대 18.4이던 것이 1976에는 81.1 대 18.9가 되어 用役輸入의 比率이 若干 上昇하는데 반하여 商品輸入이 相對的으로 低下하게 되며 77年~81年期에서 1977년에 그 比率이 81.2 대 18.8이던 것이 1981년에는 82.3 대 17.7이 되어 商品輸入의 比重이 若干 增大하는데 반하여 用役輸入이 相對的으로 減少하게 된다. 70年代에서 1972년에 그 比率이 81.6 대 18.4이던 것이 1981년에는 82.3 대 17.7이 되어 若干의 比率의 商品輸入이 增加하고 用役輸入이 減縮하게 된다.

表 5. 財貨 및 用役輸出入構造 變化推移

單位 : %

	經濟再建期 53~56		經濟安定期 57~61		1次計劃期 62~66		2次計劃期 67~71		3次計劃期 72~76		77~81期 77~81	
輸出總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商 品	75.8	71.3	55.7	36.5	42.1	66.1	64.6	79.6	74.8	83.8	81.5	87.0
用 役	24.2	28.7	44.3	63.5	57.9	33.9	35.4	20.4	25.2	16.2	18.5	13.0
輸入總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商 品	98.2	96.5	94.8	90.4	94.0	94.9	94.1	94.2	81.6	81.1	81.2	82.3
用 役	1.8	3.5	5.2	9.6	6.0	5.1	5.9	5.8	18.4	18.9	18.8	17.7

資料 :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72.

經濟企劃院, 韓國經濟의 長期展望作成指針, 1973.

다음에 輸出入額構造의 變化 推移를 보면 經濟再建期에서 輸出入額 385.0百萬弗 중 輸出額은 39.6百萬弗로서 10.3%인데 대하여 輸入額은 345.4百萬弗로서 89.7%가 되어 輸入超過額은 305.8百萬弗로서 79.4%이던 것이 1956년에 輸出入額 410.7百萬弗 중 輸出額은 24.6百萬弗로서 6.0%인데 대하여 輸入額은 386.1百萬弗로서 94.0%로서 輸入超過額은 361.5百萬弗로서 88.0%가 되어 輸入超過額이 약 8% 增大하였다. 그 原因은 同期에 있어서 動亂中 農業 生産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食糧을 爲始하여 纖維類 등 各種 消費財와 鐵鋼材 및 機械類 등 生産財 導入이 增大하였기 때문이다.

經濟安定期에서 1957년에 輸出入額 464.4百萬弗중 輸出額은 22.2百萬弗로서 4.8%밖에 차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輸入額은 442.2百萬弗로서 95.2%가 되어 輸入超過額은 420百萬弗로서 90.4%이란 最高를 記錄하던 것이 1961년에 輸出入額은 357百萬弗 중 輸出額은 40.9百萬弗로서 11.5%인데 대하여 輸入額은 316.1百萬弗로서 88.5%가 되어 輸入超過額은 275.2百萬弗로서 77.1%가 되었는데 그 結果 약 13%나 減少되었다. 그 原因은 同期에 있어서 化學肥料, 原棉, 人絹糸 등 工業原料와 機械類 및 運搬用機器 등 資本財 導入이 增大하였으나 輸出이 약 6%나 伸張되기 때문이다.

1次計劃期에서 1962년에 輸出入額 476.6百萬弗 중 輸出額은 54.8百萬弗로서 11.5%인데 대

하여 輸入額은 421.8百萬弗로서 88.5%가 되어 輸入超過額은 367.0百萬弗로서 77.0%를 차지 하던 것이 1966년에 輸出入額은 966.7百萬弗 중 輸出額은 250.3百萬弗로서 25.9%인데 대하여 輸入額은 716.4百萬弗로서 74.1%가 되어 輸入超過額은 466.1百萬弗로서 48.2%가 되었는데 그 結果 그 比率이 약 29%나 低下되었다. 그 原因은 1次計劃을 遂行하기 위하여 機械類를 爲始하여 各種 資本財와 原資材의 輸入이 急激히 늘어났으나 輸出의 比率이 약 14%나 增大되었기 때문이다.

2次計劃期에서 1967년에 輸出入額 1,316.4百萬弗 중 輸出額은 320.2百萬弗로서 24.3%인데 대하여 輸入額은 996.2百萬弗로서 75.7%가 되어 輸入超過額은 676.0百萬弗로서 51.4%이던 것이 1971년에는 輸出入額 3,461.9百萬弗중 輸出額은 1,067.6百萬弗로서 30.8%인데 대하여 輸入額은 2,394.7百萬弗로서 69.2%가 되어 輸入超過額은 1,326.7百萬弗로서 38.3%가 되었는데 그 結果 그 比率은 약 13%나 縮少되었다. 그 原因은 同期에 있어서 原資材 資本財 輸入이 大幅 增大되었으나 輸出貿易이 6.5%나 相對的으로 擴大되기 때문이었다.

3次計劃期에서 1972년에는 輸出入額 4,167百萬弗 중 輸出額은 1,676百萬弗로서 40.2%인데 대하여 輸入額은 2,491百萬弗로서 59.8%가 되어 輸入超過額은 815百萬弗로서 19.6%이던 것이 1976년에 輸出入額 9,798百萬弗 중 輸出額은 4,407百萬弗로서 45.0%인데 대하여 輸入額은 5,391百萬弗로서 55.0%가 되어 輸入超過額은 984百萬弗로서 10.0%밖에 되지 않게 計劃하고 있는데 그 原因은 輸出의 比率이 약 5% 成長하는데 반하여 輸入은 그 率만큼 減少하기 때문이다.

77年~81年期에서 1977년에 輸出入額은 11,760百萬弗중 輸出額은 5,290百萬弗로서 45.0%이런 높은 成長率을 計劃하고 있는데 대하여 輸入額은 6,470百萬弗로서 55.0%가 되어 輸入超過額은 1,180百萬弗로서 10.0%에 不過하던 것이 1981년에 輸出入額 22,662百萬弗 중 輸出額은 10,970百萬弗로서 48.4%인데 대하여 輸入額은 11,692百萬弗로서 51.6%가 되어 輸入超過額은 722百萬弗로서 不過 3.2%밖에 되지 않아 宿願인 輸出入均衡이 거의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輸出入依存構造의 變化 趨勢를 보면 經濟再建期에서 1953년에 貿易依存度는 1.7%이고 輸出依存度는 2.0%인데 대하여 輸入依存度는 9.7%이던 것이 1956년에 貿易依存度는 14.5%이고 輸出依存度는 1.4%인데 대하여 輸入依存度는 13.1%가 되어 輸出依存度는 多少 減少하였는데 반하여 輸入依存度는 크게 增加하여 貿易依存도가 上昇하게 되었다.

經濟安定期에서 1957년에 貿易依存度는 13.5%이고 輸出依存度는 1.5%인데 대하여 輸入依存度는 12.0%이던 것이 1961년에 貿易依存度는 20.1%이고 輸出依存度는 5.3%인데 대하여 輸入依存度는 14.8%가 되어 輸出依存度の 上昇率이 輸入依存度の 上昇率보다 上廻하므로써 貿易依存도가 크게 增大하였다.

1次計劃期에서 1967년에 貿易依存度는 22.1%이고 輸出依存度는 5.2%인데 대하여 輸入依

表 6. 輸出入額構造 變化推移

單位：百萬弗  
%

	經濟再建期 53~56		經濟安定期 57~61		1次計劃期 62~66		2次計劃期 67~71		3次計劃期 72~76		77~81期 77~81	
輸出入額	385.0	410.7	464.4	357.0	476.6	966.7	1,316.4	3,461.9	4,167	9,798	11,760	22,6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輸 出 額	39.6	24.6	22.2	40.9	54.8	250.3	320.2	1,067.6	1,676	4,407	5,290	10,970
	(10.3)	(6.0)	(4.8)	(11.5)	(11.5)	(25.9)	(24.3)	(30.8)	(40.2)	(45.0)	(45.0)	(48.4)
輸 入 額	345.4	386.1	442.2	316.1	421.8	716.4	996.2	2,394.7	2,491	5,391	6,470	11,692
	(89.7)	(94.0)	(95.2)	(88.5)	(88.5)	(74.1)	(75.7)	(69.2)	(59.8)	(55.0)	(55.0)	(51.6)
輸出入超過	-305.8	-361.5	-420.0	-275.2	-367.0	-466.1	-676.0	-1,326.7	-815	-984	-1,180	-722
	(79.4)	(88.0)	(90.4)	(77.1)	(77.0)	(48.2)	(51.4)	(38.3)	(19.6)	(10.0)	(10.0)	(3.2)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72.  
經濟企劃院, 韓國經濟의 長期展望作成指針, 1973.

存度로 16.9%이던 것이 1966년에 貿易依存度는 30.5%이고 輸出依存度는 10.3%인데 대하여 輸入依存度는 20.1%가 되어 如前히 輸出依存度の 增加率이 輸入依存度の 增加率보다 上廻하면서 貿易依存度가 繼續 增大하였다.

2次計劃期에서 1967년에 貿易依存度는 33.4%이고 輸出依存度는 11.4%인데 대하여 輸入依存度는 22.0%이던 것이 1971년에 貿易依存度는 43.8%이고 輸出依存度는 16.3%인데 대하여 輸入依存度는 27.5%가 되어 前期와 달리 輸入依存度の 成長率이 輸出依存度の 成長率보다 上廻하면서 貿易依存度가 약 10% 增大하였다.

3次計劃期에서 1972년에 貿易依存度는 51.7%이고 輸出依存度는 22.6%인데 대하여 輸入依存度는 29.1%이던 것이 1976년에 貿易依存度는 70.8%이고 輸出依存度는 33.3%인데 대하여 輸入依存度는 37.5%가 되어 韓國經濟는 1972년에 對外依存度가 50%線을 超過하며 1976년에는 輸出依存度가 輸入依存度보다 빨리 伸張하여 對外依存度가 70%線을 突破하게 된다.

77年~81年期에서 1977년에 貿易依存度는 73.8%이고 輸出依存度는 34.7%인데 대하여 輸入依存度는 39.1%이던 것이 1981년에 貿易依存度는 88.3%이고 輸出依存度는 44.3%인데 대하여 輸入依存度는 44.0%가 되어 輸出依存度가 輸入依存度보다 倍나 가까운 增加率을 計劃하여 1981년에 가서는 輸出依存度가 輸入依存도와 거의 같아지며 貿易依存度가 90%線에 육박하여 韓國經濟가 國際經濟의 影響을 크게 받게 된다.

以上과 같이 韓國經濟는 對外依存度가 繼續 높아지고 있으므로 資源, 生産技術 勞賃 및 物價 등에서 여러가지 隘路가 크게 豫想되고 있는데 이것을 克服하기 위하여 輸出産業의 施設 擴充, 加工技術의 開發과 企業經營의 刷新 등을 통하여 國際競爭을 培養하여 海外市場을 파고들어가 通商增大에 힘을 기울이어야 한다.

財源別 輸入構造 變化 推移를 보면 經濟再建期에서 1953년에 輸入額 345.4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151.2百萬弗로서 43.7%, 公共援助輸入은 194.2百萬弗로서 56.3%이던 것이 1956年

表 7. 輸出入依存構造 變化推移

單位：%

	經濟再建期 53~56		經濟安定期 57~61		1次計劃期 62~66		2次計劃期 67~71		3次計劃期 72~76		77年~81年期 77~81	
貿易依存度	1.7	14.5	13.5	20.1	22.1	30.5	33.4	43.8	51.7	70.8	73.8	88.3
輸出依存度	2.0	1.4	1.5	5.3	5.2	10.3	11.4	16.3	22.6	33.4	34.7	44.3
輸入依存度	9.7	13.1	12.0	14.8	16.9	20.1	22.0	27.5	29.1	37.5	39.1	44.0

資料：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72.

經濟企劃院, 韓國經濟의 長期展望作成指針, 1973.

에 輸入額 386.1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59.4百萬弗로서 15.9%, 公共援助輸入은 326.7百萬弗로서 84.1%가 되어 公共援助가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였는데 그 當時 美國의 對韓援助는 CRIK(韓國民間救護計劃) 및 UNKRA(國際聯合韓國再建團에 의한 援助) PL 480(美公法 480號)와 ICA(國際協調處)등의 援助이었다.

經濟安定期에서 1957년에 輸入額 442.2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46.9百萬弗로서 10.6%, 公共援助輸入은 374.0百萬弗로서 84.6%, 救護 및 其他 輸入은 21.2百萬弗로서 4.8%이던 것이 1961년에 輸入額 316.1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103.1百萬弗로서 32.6%, 公共援助輸入은 196.8百萬弗로서 62.3% 救護 및 其他 輸入은 16.2百萬弗로서 5.1%가 되어 同期間에 公共援助輸入이 크게 減少하였는데 반하여 保有外換輸入이 增大하였으며 그 結果 美國의 對韓援助가 減少함에 따라 輸出에 의하여 輸入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UNKRA 援助에 의하여 仁川板 유리工場 聞慶시멘트工場, 長項鍊鍊所 및 紡織工場 등의 施設復舊 및 擴張 등 적지않게 基幹 產業과 輕工業이 建設되어 2次產業의 國產化가 增大되었다.

1次計劃期에서 1962년에 輸入額 421.8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179.0百萬弗로서 43.4%, 公共援助輸入은 218.5百萬弗로서 51.8%, 借款輸入은 4.5百萬弗로서 1.1% 救護 및 其他 輸入은 19.7百萬弗로서 4.7%이던 것이 1966년에 輸入額 716.4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397.8百萬弗로서 55.5%, 公共援助輸入은 143.6百萬弗로서 20.1%, 借款輸入은 108.4百萬弗로서 15.1%, 請求權資金輸入은 4.1百萬弗로서 0.6%, 救護 및 其他 輸入은 19.7百萬弗로서 4.7%가 되어 輸出에 의한 輸入이 크게 伸張하는 同時에 借款輸入이 大幅 增大하는데 반하여 公共援助輸入이 크게 減少하였다.

2次計劃에서 1967년에 輸入額 996.2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640.7百萬弗로서 64.3%, 公共援助輸入은 119.2百萬弗로서 12.0%, 借款輸入은 167.3百萬弗로서 16.8%, 請求權資金輸入은 32.8百萬弗로서 3.3%, 救護 및 其他 輸入은 36.2百萬弗로서 3.6%이던 것이 1971년에 輸入額 2,394.3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1,595.4百萬弗로서 66.6%, 公共援助輸入은 105.6百萬弗로서 4.4% 借款輸入은 541.4百萬弗로서 22.6%, 請求權資金輸入은 20.2百萬弗로서 0.9%, 救護 및 其他 輸入은 131.8百萬弗로서 5.6%가 되며 同期間에 公共援助에 의한 輸入比率는 極



히 적고 輸出에 의하여 輸入하는 保有外換輸入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借款輸入의 比率도 크게 增大하였다.

3次計劃期에서 1972년에 輸入額 2,491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1,657百萬弗로서 66.5%, 公共援助輸入은 5百萬弗로서 0.2%, 借款輸入은 629百萬弗로서 25.3%, 請求權資金輸入은 30百萬弗로서 1.2%, 救護 및 其他 輸入은 175百萬弗로서 7.0%이던 것이 1976년에 輸入額 5,391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4,297百萬弗로서 79.7% 借款輸入은 918百萬弗로서 17.0% 救護 및 其他 輸入은 176百萬弗로서 3.3%가 되어 同期間에 輸出에 의하여 輸入하는 自體調達 比率이 약 80%線에 達하게 되니 韓國經濟가 多年間 外援에 의하여 成長해오던 것이 自體經濟 能力에 의하여 伸張하게 된다.

77年~81年期에서 輸入額 6,470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5,135百萬弗로서 79.4%, 借款輸入은 1,176百萬弗로서 18.2%, 救護 및 其他 輸入은 159百萬弗로서 2.4%이던 것이 1981년에 輸入額 11,692百萬弗중 保有外換輸入은 10,384百萬弗로서 88.8%, 借款輸入은 1,013百萬弗로서 8.7%, 救護 및 其他 輸入은 295百萬弗로서 2.5%가 되어 輸出에 의하여 輸入하는 自立度가 약 90%線에 達하게 되므로 自動的으로 經濟成長을 이룩하게 된다.

表 8. 財源別 輸入構造 變化推移

單位: 百萬弗  
%

	經濟再建期 53~56		經濟安定期 57~61		1次計劃期 62~66		2次計劃期 67~71		3次計劃期 72~76		77年~81年期 77~81	
輸入額	345.4 (100.0)	386.1 (100.0)	422.2 (100.0)	316.1 (100.0)	421.8 (100.0)	716.4 (100.0)	996.2 (100.0)	2,394.3 (100.0)	2,491 (100.0)	5,391 (100.0)	6,470 (100.0)	11,692 (100.0)
保有外換	151.2 (43.7)	59.4 (15.9)	46.9 (10.6)	103.1 (32.6)	177.0 (42.4)	397.8 (55.5)	640.7 (64.3)	1,595.4 (66.6)	1,657 (66.5)	4,297 (79.7)	5,135 (79.4)	10,384 (88.8)
公共援助	194.2 (56.3)	326.7 (84.1)	374.0 (84.6)	196.8 (62.3)	218.5 (51.8)	143.6 (20.1)	119.2 (12.0)	105.6 (4.4)	5 (0.2)	—	—	—
借款	—	—	—	—	4.5 (1.1)	108.4 (15.1)	167.3 (16.8)	541.4 (22.6)	629 (25.3)	918 (17.0)	1,176 (8.2)	1,013 (8.7)
請求權資金	—	—	—	—	—	4.1 (0.6)	32.8 (3.3)	20.2 (0.9)	30 (1.2)	—	—	—
救護 및 其他	—	—	21.2 (4.8)	16.2 (5.1)	19.7 (4.7)	62.5 (8.7)	36.2 (3.6)	131.8 (5.5)	175 (7.0)	176 (3.3)	159 (2.4)	295 (2.5)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72.

經濟企劃院, 韓國經濟의 長期展望作成指針, 1973.

形態別 輸入構造 變化 趨勢를 보면 經濟再建期에서 1953년에 輸入額 345.4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169.3百萬弗로서 49.0%, 原資材輸入은 11.7百萬弗로서 3.4%, 資本財輸入은 160.6百萬弗로서 46.5% 其他 輸入은 3.8百萬弗로서 1.1%이던 것이 1956년에 輸入額 386.1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125.5百萬弗로서 32.5%, 原資材輸入은 43.6百萬弗로서 11.3%, 資本財輸入은 213.9百萬弗로서 55.4% 其他 輸入은 3.1百萬弗로서 0.8%가 되어 同期間中 消費財輸入의 比率은 相對的으로 低下되었는데 반하여 原資材輸入의 比重은 若干 上昇하였으나 資本財輸入의

比率은 크게 增大되었다.

經濟安定期에서 1957년에 輸入額 442.2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210.0百萬弗로서 47.5%, 原資材輸入은 43.4百萬弗로서 9.8%, 原資材輸入은 184.8百萬弗로서 41.8%, 其他 輸入은 4百萬弗로서 0.9%이던 것이 1961년에 輸入額 316.1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45.8百萬弗로서 14.5%, 原資材輸入은 196.3百萬弗로서 62.1%, 資本財輸入은 42.4百萬弗로서 13.4%, 其他 輸入은 31.6百萬弗로서 10%가 되어 그 동안 消費財輸入이 大幅 低下되었는데 반하여 原資材輸入이 크게 增大하였다.

1次計劃期에서 1962년에 輸入額 421.8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58.6百萬弗로서 13.9%, 原資材輸入은 291.9百萬弗로서 69.2%, 資本財輸入은 69.6百萬弗로서 16.5%, 其他 輸入은 1.7百萬弗로서 0.4%이던 것이 1966년에 輸入額 716.4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83.1百萬弗로서 11.6%, 原資材輸入은 458.5百萬弗로서 64.0%, 資本財輸入은 171.9百萬弗로서 24.0%, 其他 輸入은 2.9百萬弗로서 4%가 되어 同期間中 原資材輸入 比率이 若干 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資本財輸出 比重이 크게 增大되었다.

2次計劃期에서 1967년에 輸入額 996.2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111.6百萬弗로서 11.2%, 原資材輸入은 574.8百萬弗로서 57.7%, 資本財輸入은 309.8百萬弗로서 31.1%이던 것이 1971년에 輸入額 2,394.3 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462.1百萬弗로서 19.3%, 原資材輸入은 1,211.5百萬弗로서 50.6%, 資本財輸入은 720.7百萬弗로서 30.1%가 되어 同期間에 資本財輸入 比重은 若干 上昇하였으나 原資材輸入 比率은 크게 增大하여 그것이 總輸入額의 過半數를 超過하였다.

3次計劃期에서 1972년에 輸入額 2,491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499百萬弗로서 20.0%, 原資材輸入은 1,230百萬弗로서 49.4%, 資本財輸入은 762百萬弗로서 30.6%이던 것이 1976년에 輸入額 5,391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860百萬弗로서 16%, 原資材輸入은 3,092百萬弗로서 57.3%, 資本財輸入은 1,439百萬弗로서 26.7%가 되어 消費財 및 資本財輸入의 比率은 漸次 減少하는데 반하여 原資材輸入의 比率은 약 60%線에 육박하고 있어 原資材輸入이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된다.

77年~81年期에서 1977년에 輸入額 6,470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932百萬弗로서 14.4%, 原資材輸入은 3,701百萬弗로서 55.0%, 資本財輸入은 1,837百萬弗로서 28.4%이던 것이 1981년에 輸入額 11,692百萬弗중 消費財輸入은 1,496百萬弗로서 12.8%, 原資材輸入은 7,111百萬弗로서 60.8%, 資本財輸入은 3,085百萬弗로서 26.4%가 되어 그동안 原資材輸入이 크게 增大하므로 總輸入의 60%線을 超過하게 된다.

40年代 및 50年代 韓國의 輸入은 援助에 의한 輸入이었으므로 援助供與國의 意志에 따른 消費財輸入이 不可避하였으나 60年代의 前半부터의 輸入은 自力輸入과 借款에 의한 輸入이

漸次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어느程度 韓國의 政策意思대로 開發計劃에 必要한 施設財의 原資材를 주로 輸入하였으며 70年代에서는 資本財輸入 比率은 약  $\frac{1}{3}$  線을 維持하고 있으나 原資材의 對外依存度가 높은 重化學工業製品을 輸出하고 있기 때문에 原資材輸入 比率은  $\frac{2}{3}$  線에 육박하게 되고 80年代에 가서는 輸出品의 大宗이 重化學工業製品이기 때문에 더욱 原資材輸入이 增加하여 原資材輸入 比率이  $\frac{2}{3}$  線을 超過하게 된다.

表 9. 形態別 輸入構造 變化推移

單位：百萬弗 %

	經濟再建期 53~56		經濟安定期 57~61		1次計劃期 62~66		2次計劃期 67~71		3次計劃期 72~76		77~81期 77~81	
輸入額	345.4 (100.0)	386.1 (100.0)	442.2 (100.0)	316.1 (100.0)	421.8 (100.0)	716.4 (100.0)	996.2 (100.0)	2,394.3 (100.0)	2,491 (100.0)	5,391 (100.0)	6,470 (100.0)	11,692 (100.0)
消費財	169.3 (49.0)	125.5 (32.5)	210.0 (47.5)	45.8 (14.5)	58.6 (13.9)	83.1 (11.6)	111.6 (11.2)	462.1 (19.3)	499 (20.0)	860 (16.0)	932 (14.4)	1,496 (12.8)
原資材	11.7 (3.4)	43.6 (11.3)	43.4 (9.8)	196.3 (62.1)	291.9 (69.2)	458.5 (64.0)	574.8 (57.7)	1,211.5 (50.6)	1,230 (49.4)	3,092 (57.3)	3,701 (55.0)	7,111 (60.8)
資本財	160.6 (46.5)	213.9 (55.4)	184.8 (41.8)	42.4 (13.4)	69.6 (16.5)	171.9 (24.0)	309.8 (31.1)	720.7 (30.1)	762 (30.6)	1,439 (26.7)	1,837 (28.4)	3,085 (26.4)
其他	3.8 (1.1)	3.1 (0.8)	4.0 (0.9)	31.6 (10.0)	1.7 (0.4)	2.9 (0.4)	—	—	—	—	—	—

資料：産業銀行, 『韓國産業銀行十年史』, 1964.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0.

經濟企劃院, 韓國經濟의 長期展望作成指針, 1973.

註：消費財는 SITC 0 1 및 8類, 資本財는 SITC 7類, 原資材는 SITC 2, 3, 4, 5, 6類, 其他는 SITC 9類.

形態別 輸出構造 變化 趨勢를 보면 經濟再建期에서 1953년에 輸出額 39.6百萬弗은 全額 一般輸出이던 것이 1956년에 輸出額 24.6百萬弗은 100% 一般輸出이었다. 經濟安定期에서 1957년에 輸出額 22.2百萬弗은 全額 一般輸出이던 것이 1961년에 輸出額 40.9百萬弗중 一般輸出은 38.6百萬弗로서 94.4%, 其他 輸出은 2.3百萬弗로서 不過 5.6% 밖에 차지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50年代에서 輸出은 全額 一般輸出이었다.

2次計劃期에서 1962년에 輸出額 54.8百萬弗중 一般輸出은 52.8百萬弗로서 96.4%, 保稅加工輸出은 1.0百萬弗로서 1.8%, 其他 輸出은 1.0百萬弗로서 1.8%이던 것이 1966년에 輸出額 250.3百萬弗중 一般輸出은 218.8百萬弗로서 86.2%, 保稅加工輸出은 28.8百萬弗로서 11.5%, 其他 輸出은 5.7百萬弗로서 2.3%가 되었으며 1962년에 保稅加工輸出貿易이 비로소 登場하여 크게 增大하는데 반하여 一般輸出貿易이 低下하였다. 2次計劃期에서 1967년에 輸出額 320.2百萬弗중 一般輸出은 259.6百萬弗로서 81.1%, 保稅加工輸出은 49.8百萬弗로서 15.6%, 其他 輸出은 10.9百萬弗로서 3.3%이던 것이 1971년에 輸出額 1,067.6百萬弗중 一般輸出은 839.1百萬弗로서 78.6%, 保稅加工輸出은 209.2百萬弗로서 19.6%, 其他 輸出은 19.2百萬弗로서 1.8%가 되어 保稅加工輸出이 4%나 伸張하는데 반하여 一般輸出과 其他 輸出이 減少되었다. 그 結果 60年代에서 輸出貿易은 保稅加工輸出이 약 20%를 記錄하여 새로운 貿易型이 發達하였다.

表 10. 形態別 輸出構造 變化推移

單位：百萬弗  
%

	經濟再建期 53~56		經濟安定期 57~61		1次計劃期 62~66		2次計劃期 67~71	
輸 出 額	39.6 (100.0)	24.6 (100.0)	22.2 (100.0)	40.9 (100.0)	54.8 (100.0)	250.3 (100.0)	320.2 (100.0)	1,067.6 (100.0)
一 般 輸 出	39.6 (100.0)	24.6 (100.0)	22.2 (100.0)	38.6 (94.4)	52.8 (96.4)	218.8 (86.2)	259.6 (81.1)	839.1 (78.6)
保稅加工輸出	—	—	—	—	1.0 (1.8)	28.8 (11.5)	49.8 (15.6)	209.2 (19.6)
其 他 輸 出	—	—	—	2.3 (5.6)	1.0 (1.8)	5.7 (2.3)	10.9 (3.3)	19.2 (1.8)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72.

產品別 輸出構造의 變化 推移를 보면 經濟再建期에서 1953년에 輸出額 44.8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3.9萬百萬弗로서 8.6%, 水產物輸出은 5.4百萬弗로서 12.1%, 鑛產物輸出은 35.3百萬弗로서 78.8% 工產物輸出은 0.2百萬弗로서 0.5%이던 것이 1956년에 輸出額 25.2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3.0百萬弗로서 12.0%, 水產物輸出은 2.9百萬弗로서 11.5%, 鑛產物輸出은 16.3百萬弗로서 64.8%, 工產物輸出은 2.9百萬弗로서 11.7%가 되어 水產物과 鑛產物輸出의 比率이 若干 減少하였는데 반하여 農產物과 工產物輸出의 比率이 多少 增大하였으며 同期間에 있어서 鑛產物輸出이 主宗을 이루고 있었다.

經濟安定期에서 1957년에 輸出額 22.2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2.2百萬弗로서 9.6%, 水產物輸出은 3.4百萬弗로서 15.5%, 鑛產物輸出은 12.8百萬弗로서 57.8%, 工產物輸出은 3.8百萬弗로서 17.1%이던 것이 1961년에 輸出額 40.9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7.8百萬弗로서 19.0%, 水產物輸出은 6.9百萬弗로서 17.0%, 鑛產物輸出은 17.2百萬弗로서 42.0%, 工產物輸出은 9.0百萬弗로서 22.0%가 되어 鑛產物輸出이 약 15% 減少하였는데 반하여 水產物과 農產物輸出이 若干 增加하였으며 특히 工產物輸出이 약 5% 增大하였다. 同期間에 있어서 輸出產品의 大宗은 鑛產物이었다.

1次計劃期에서 1962년에 輸出額 54.8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12.6百萬弗로서 23.0%, 水產物輸出은 12.1百萬弗로서 22.0%, 鑛產物輸出은 15.3百萬弗로서 28.0%, 工產物輸出은 14.8百萬弗로서 27.0%이던 것이 1966년에 輸出額 250.3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23.8百萬弗로서 9.5%, 水產物輸出은 36.8百萬弗로서 14.7%, 鑛產物輸出은 33.5百萬弗로서 13.4%, 工產物輸出은 156.2百萬弗로서 62.4%가 되어 工產物輸出이 약 35%나 大幅 增大하였는데 반하여 非加工物인 農水鑛產物輸出이 一律의으로 減少하였는데 그 중 특히 農產物輸出의 比重이 크게 떨어졌다. 韓國輸出은 前期까지만 해도 非加工產物이 輸出產品의 主流을 이루었으나 1次計劃期에서 經濟開發計劃이 成功하여 工業製品 生産이 擴大하므로 工產物輸出이 全體의 60%

線을 突破하게 되었다.

2次計劃期에서 1967년에 輸出額 320.2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15.1百萬弗로서 4.7%, 水產物輸出은 48.0百萬弗로서 15.0%, 鑛產物輸出은 33.0百萬弗로서 10.3%, 工產物輸出은 224.1百萬弗로서 70.0%이던 것이 1971년에 輸出額 1,067.6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29.9百萬弗로서 2.8%, 水產物輸出은 82.2百萬弗로서 7.7%, 鑛產物輸出은 37.4百萬弗로서 3.5%, 工產物輸出은 918.1百萬弗로서 86.0%가 되어 前期보다 工產物輸出의 比率이 大幅 增大하였는데 반하여 農產物, 水產物, 鑛產物 등 非加工物輸出의 比重이 減少하였으며 그중 農產物輸出 比率보다 水產物 및 鑛產物輸出의 比重이 더욱 低下하였다. 以上과 같이 60年代 末期에 와서는 工產物輸出이 輸出產品에 있어서 86%나 차지하여 輸出에 있어서 主要品이 되고 있다.

計劃値에 의하면 3次計劃期에서 1972년에 輸出額 1,676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49百萬弗로서 2.9%, 水產物輸出은 127百萬弗로서 7.6%, 鑛產物輸出은 30百萬弗로서 1.8%, 工產物輸出은 1,470百萬弗로서 87.7%이던 것이 1976년에 輸出額 4,407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97百萬弗로서 2.2%, 水產物輸出은 278百萬弗로서 6.3%, 鑛產物輸出은 48百萬弗로서 1.1%, 工產物輸出은 3,984百萬弗로서 90.4%가 되어 繼續 工產物輸出 比率은 上昇하는데 반하여 非工產品輸出 比率은 下落하므로 工產品輸出이 同計劃期 最終年度에 가서는 全體輸出의 90%線을 突破하여 工業國의 輸出貿易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77年~81年期에서 輸出額 5,290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111百萬弗로서 2.1%, 水產物輸出은 312百萬弗로서 5.9%, 鑛產物輸出은 48百萬弗로서 0.9%, 工產物輸出은 4,819百萬弗로서 91.1%이던 것이 1981년에 輸出額 10,970百萬弗중 農產物輸出은 164百萬弗로서 1.5%, 水產物輸出은 494百萬弗로서 4.5%, 鑛產物輸出은 55百萬弗로서 0.5%, 工產物輸出은 1,025.7百萬弗

表 11. 產品別 輸出構造 變化推移

單位：百萬弗  
%

	經濟再建期 53~56		經濟安定期 57~61		1次計劃期 62~66		2次計劃期 67~71		3次計劃期 72~76		77年~81年期 77~81	
輸 出 額	44.8 (100.0)	25.2 (100.0)	22.2 (100.0)	40.9 (100.0)	54.8 (100.0)	250.3 (100.0)	320.2 (100.0)	1,067.6 (100.0)	1,676 (100.0)	4,407 (100.0)	5,290 (100.0)	10,970 (100.0)
農 產 物	3.9 (8.6)	3.0 (12.0)	2.2 (9.6)	7.8 (19.0)	12.6 (23.0)	23.8 (9.5)	15.1 (4.7)	29.9 (2.8)	49 (2.9)	97 (2.2)	111 (2.1)	164 (1.5)
水 產 物	5.4 (12.1)	2.9 (11.5)	3.4 (15.5)	6.9 (17.0)	12.1 (22.0)	36.8 (14.7)	48.0 (15.0)	82.2 (7.7)	127 (7.6)	278 (6.3)	312 (5.9)	494 (4.5)
鑛 產 物	35.3 (78.8)	16.3 (64.8)	12.8 (57.8)	17.2 (42.0)	15.3 (28.0)	33.5 (13.4)	33.0 (10.3)	37.4 (3.5)	30 (1.8)	48 (1.1)	48 (0.9)	55 (0.5)
工 產 物	0.2 (0.5)	2.9 (11.7)	3.8 (17.1)	9.0 (22.0)	14.8 (27.0)	156.2 (62.4)	224.1 (70.0)	918.1 (86.0)	1,470 (87.7)	3,984 (90.4)	4,819 (91.1)	10,257 (93.5)

資料：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各年度版.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72.

經濟企劃院, 韓國開濟의 長期展望作成指針, 1973.

註：1972年~81年期間의 數値는 計劃値임.

로서 93.5%가 되어 繼續 非工産品輸出 比重이 漸減하는데 반하여 工産品輸出 比重이 漸增하므로 1981年度에는 工産物輸出 比率이 90%線을 突破하게 된다.

韓國의 産品別 輸出趨勢를 概觀하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非加工物중 鑛産物이 輸出의 主宗産品이었으나 60年代에서는 工産物중 輕工業産物이 輸出의 主流産品이 되었고 앞으로 70年代와 80年代에서는 工産品중 重化學工業産物이 輸出의 大宗産品이 된다.

商品을 輸出하기 위하여 生産하는 過程에 있어서 直接, 間接的으로 他聯關産業에 미친 生産誘發시키는 效果構造의 變化를 보면 1963년에 商品 8,680萬弗을 輸出하기 위하여 他聯關産業에 미친 生産誘發額은 輸出額의 1.57倍인 13,628萬弗이던 것이 1964년에는 1.54倍가 되어 若干 減少되었으나 1965년부터는 輸出로 인하여 聯關産業에서 生産되는 輸出額에 대한 生産誘發의 比率은 해마다 높아져 1965년에는 1.58, 1966년에는 1.62, 1967년에는 1.64, 1968년에는 1.67, 1969년에는 1.70, 1970년에는 1.73, 1971/2 에는 1.75가 되고 있다.

以上과 같이 1963년에 1.57倍에서 1972년에 1.75倍로 年次的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事實은 韓國의 輸出商品構造가 原始的인 1次産品 輸出爲主로 부터 漸次 生産迂廻도가 높은 工産品 輸出爲主으로 轉換되고 있음을 立證해주고 있다.

韓國은 40年代 및 50年代에 輸出商品構造가 原始的인 1次産品이 輸出의 大宗이던 것이 60年代에서는 2次産品중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이 輸出의 中心이 되어 生産迂廻도가 높아지기 始作하였고 70年代에서는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製品이 輸出의 大宗이 되므로 더욱 生産迂廻도가 深化될 것이며 80年代에 가서는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製品이 輸出品으로 登場하게 되므로 生産迂廻도가 더욱 深化되어 生産誘發係數가 上昇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輸出의 所得誘發效果는 輸出의 増大가 輸出商品을 生産하는데 있어서 關聯되는 諸産業의 生産을 誘發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生産誘發을 통하여 所得을 增加시키는 것이다. 즉 輸出 増大는 新規 輸出需要를 創造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해서 直接

表 12. 輸出의 生産誘發額 推移

單位：萬弗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商品 輸出 額	8,680	11,906	17,508	25,033	32,023	45,540	62,252	83,519	106,761	162,409
生産 誘發 額	13,628	18,345	27,663	40,554	52,518	76,052	105,828	144,487	186,741	283,873
生産 誘發 效果 (商品 輸出 額에 대한 生産 誘發 額의 係數)	1.57	1.54	1.58	1.62	1.64	1.67	1.70	1.73	1.75	1.75

資料：韓國銀行, 産業聯關表作成報告, 1963~68 (1963年~68年間の 數値)

韓國經濟開發協會, 戰略輸出産業의 育成과 輸出振興政策方向設定에 관한 研究에서 分析한 生産誘發係數에 의하여 作成한 것 (1969年~70年間の 數値)

韓國貿易協會, 貿易, 1973年 9月 (1971年~72年間の 數値)

的으로 輸出商品을 製造하는 輸出産業과 間接的으로는 이 輸出商品을 生産하는데 必要한 諸 聯關産業의 生産活動을 促進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들 各種 聯關産業들은 그 工産過程에서 他産業部門으로 부터는 原材料를 中間投入物로 購買하게 되며 이들을 生産하기 위해서는 家計에서 勞動力과 資本을 購入하게 되고 그 代身 企業은 賃金과 利子를 그 代價로 支給하게 되어 家計의 所得을 形成하게 된다. 産業聯關表에서는 이러한 賃金, 利子, 地代, 企業利潤 등을 合하면 附加價值額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所得額으로 記錄된다.

1963년에 輸出額 8,680百萬弗에 대한 80.0%에 該當하는 6,944百萬弗의 所得을 誘發시켰으며 1964년에는 76.2%가 되던 것이 1965년에는 74.2%, 1966년에는 73.3%, 1967년에는 73.5%, 1968년에는 72.6%, 1969년에는 70.8%, 1970년에는 67.6%, 1971년에는 65.4%, 1972년에는 65.0%로 漸次 減少되고 있는데 이처럼 輸出에 대한 所得誘發額의 比率 즉 輸出産業의 純外貨稼得率은 떨어지고 있는 現象이고 이것은 韓國이 輸出産業 爲主로 轉換하면서 부터 輸入需要 특히 非競爭品目的 輸入需要가 많아지고 있음을 意味한다.

韓國 輸出貿易은 40年代 및 50年代에 1次產品이 輸出의 中心이었기 때문에 所得誘發效果가 컸으나 60年代에서는 2次產品중 纖維類, 合板 등이 輸出의 大宗이 되고 있는데 그 原資材가 對外輸入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所得誘發效果가 減少되었으며 70年代에서는 電子製品, 電氣機器 및 船舶 등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製品이 輸出의 中心이 되고 있으므로 그 原資材도 亦是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므로 所得誘發效果가 떨어진 것이며 80年代에 가서는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製品이 輸出品으로 登場하게 될 것인데 그 原資材가 對外輸入에 依存하게 될 것이니 所得誘發效果가 繼續 低下될 것이다.

表 13. 輸出의 所得誘發效果의 推移

單位: 萬弗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輸 出 額	8,680	11,906	17,508	25,033	32,023	45,540	62,252	83,519	106,761	162,409
所得誘發額	6,944	9,077	12,991	18,350	23,537	33,062	44,074	56,908	69,784	105,600
所得誘發效果 (輸出額에 대한 所得 誘發額의 比率%)	80.0	76.2	74.2	73.3	73.5	72.6	70.8	67.6	65.4	65.0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1963年~69年間の 數值) 1971.

韓國貿易協會, 『貿易』, 1973年 9月(1970年~72年間の 數值)

그리고 所得誘發額의 國內總生産(GDP)에 대한 寄與率을 보면 1963년에는 所得誘發額 6,944百萬弗이 國內總生産 178,185百萬弗에 대한 寄與率은 3.9%이던 것이 1964년에는 3.5%, 1965년에는 4.7%, 1966년에는 5.3%, 1967년에는 5.7%, 1968년에는 6.5%, 1969년에는 7.0%, 1970년에는 7.8%, 1971년에는 7.7%, 1972년에는 10.9%가 되어 漸次 上昇하고 있는데 이것

表 14. 所得誘發額の 國內總生産에 대한 寄與率

單位：萬弗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國內總生産 (GDP)	178,185	257,790	279,068	349,175	414,925	506,152	628,526	537,852	903,783	969,885
所得誘發額	6,944	9,077	12,991	18,350	23,537	33,062	44,074	57,628	69,784	105,600
所得誘發額의 國內總生産에 대한 寄與率	3.9	3.5	4.7	5.3	5.7	6.5	7.0	7.8	7.7	10.9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4~70 (1963年~70年間の 數値)

韓國貿易協會, 『貿易』 1973年 9月 (1971年~72年間 數値)

註：1963年~70年間の GDP 의 數値는 各年度 對美換率을 適用하여 計算함.

1971~2年間の GDP 의 數値는 1970年不變市場價格이며 換率은 1弗에 313원을 適用함.

은 輸出이 經濟成長을 主導하고 있음을 證明하고 있다.

韓國經濟는 40年代 및 50年代에 輸出이 經濟成長을 誘導하지 못하였으나 60年代부터 輸出이 經濟成長을 主導하기 始作하였으며 70年代에서는 輸出이 더욱 더 經濟成長을 誘導하고 있고 80年代에 가서는 經濟成長은 輸出에 의하여 完全히 主導될 것이다.

끝으로 輸出에 의한 輸入誘發效果를 보면 輸入誘發效果는 輸出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輸出産業 自體는 勿論 餘他 輸出聯關産業에서 必要로 하는 輸入原資材에 대한 需要를 誘發시키는 것이다. 이제 輸出로 인하여 輸出産業 및 聯關産業에 미치는 輸入誘發效果構造의 變化를 보면 1963년에 輸出額 8,680萬弗은 輸入額 1,736萬弗을 誘發시켰으며 이것은 輸出額에 대하여 20%에 該當한다. 즉 8,680萬弗을 輸出하는데 輸出産業 自體와 輸出聯關産業에서 輸入한 原資材의 輸入額이 輸出額의 20%에 該當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輸出을 위하여 輸入하게 되는 輸入誘發效果는 1963년에 20.0%이던 것이 1964년에 23.8%, 1965년에 25.8%, 1966년에 24.6%, 1967년에 24.3%, 1968년에 25.1%, 1969년에 26.6%, 1970년에 26.6%가 되어 每年 漸次 높아지고 있다. 60年代에 있어서 이처럼 每年 輸出에 의한 輸入誘發效果가 높아가는 것은 輸出商品構造가 漸次 工產品 爲主로 移行하였기 때문이다.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輸入誘發效果가 農水產物 및 鑛產物의 輸出의 比重이 높았기 때문에 比較的 낮았으나 60年代에서는 合板, 纖維類 등 工產品 輸出比重이 높아 그 輸出用 原資材가 對外輸入에 依存하였기 때문에 輸入誘發效果가 漸次 增大하였으며 70年代 및 80年代에서는 重化學工業製品의 比重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더 輸入誘發效果가 擴大될 것이다.

輸出의 外貨稼得率推移를 보면 1962년에 82.9%, 1963년에 74.7% 1964년에 68.6%, 1965년에 68.7%, 1966년에 59.6%, 1967년에 59.9%, 1968년에 56.3% 1969년에 53.3%, 1970년에 51.5%로 每年 漸次 減少하였는데 1962년에 82.9%이던 것이 1970년에 51.5%가 되어 31.4%나 急激히 떨어졌다.

40年代나 50年代 輸出에서는 農水產物과 鑛產物의 輸出比率이 높았기 때문에 外貨稼得率이



表 15. 輸出의 輸入誘發額比率推移

單位：萬弗

	63	64	65	66	67	68	69	70
輸 出 額	8,680	11,906	17,508	25,033	32,023	45,540	62,252	83,519
輸 入 誘 發 額	1,736	2,857	4,552	6,258	7,686	11,385	16,185	22,550
輸 入 誘 發 效 果 (輸入誘發額의 比率)	20.0	23.8	25.8	24.6	24.3	25.1	26.6	26.6

資料：韓國銀行, 産業聯關表作成報, 1963年~68(1963年~68間의 數值)

韓國經濟開發協會, 「戰略輸出産業의 育成과 輸出振興政策方向設定에 관한 研究」에서 分析한 輸入誘發延長係數를 利用하여 作成함 (1969~70年間的 數值)

相當히 높았으나 1次計劃期부터는 輸出貿易이 加工貿易이었기 때문에 그 原資材를 輸入에 依存하므로 外貨稼得率이 低下하기 始作하였으며 70年代 및 80年代에 가서는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比重이 增大되는데 그 原資材의 對外依存度가 높아지므로 더욱 外貨稼得率이 減少될 것이다.

表 16. 外貨稼得率 變化推移

單位：%

	62	63	64	65	66	67	68	69	70
外 貨 稼 得 率	82.9	74.7	68.6	68.7	59.6	59.9	56.3	53.3	51.5

資料：貿易研究所, 『貿易研究』, 第3卷1號

工產品類別 輸出構造의 變化 推移를 보면 經濟再建期에서 1953년에 輸出額 39.6百萬弗중 化學製品輸出은 1.9百萬弗로서 5%, 原料別 商品輸出은 2百萬弗로서 5%, 雜製品輸出은 0.2百萬弗로서 1%이던 것이 1956년에 輸出額 24.6百萬弗중 機械類輸出은 0.2百萬弗로서 1%, 原料別 商品輸出은 2百萬弗로서 8.1%, 雜製品輸出은 0.2百萬弗로서 1%가 되어 同期에서 機械類輸出이 새로이 登場하였다.

經濟安定期에서 1957년에 輸出額 22.2百萬弗중 機械類輸出은 0.1百萬弗로서 0.5% 原料別 商品 輸出은 3.4百萬弗로서 15.0%, 雜製品輸出은 0.6百萬弗로서 2.7%이던 것이 1961년에 輸出額 40.9百萬弗중 化學製品輸出은 0.6百萬弗로서 1.5%, 機械類輸出은 0.9百萬弗로서 2.2%, 原料別 商品輸出은 4.0百萬弗로서 9.8%, 雜製品輸出은 0.8百萬弗로서 2.0%가 되어 輸出이 增大됨에 따라 各 工產品輸出이 一律의으로 增加하였다.

1次計劃期에서 1962년에 輸出額 54.8百萬弗중 化學製品輸出은 1百萬弗로서 1.8%, 機械類輸出은 1.4百萬弗로서 2.6%, 原料別 商品輸出은 6.2百萬弗로서 11.3%, 雜製品輸出은 2百萬弗로서 3.6%이던 것이 1966년에 輸出額 250.3百萬弗중 化學製品輸出은 1百萬弗로서 1.8%, 機械類輸出은 1.4百萬弗로서 2.6%, 原料別 商品輸出은 6.2百萬弗로서 11.3%, 雜製品輸出은

2百萬弗로서 3.6%이던 것이 1966년에 輸出額 250.3百萬弗중 化學製品輸出은 0.7百萬弗로서 0.3%, 機械類輸出은 9.6百萬弗로서 3.8%, 原料別 商品輸出은 84.2百萬弗로서 33.6%, 雜製品輸出은 59.2百萬弗로서 23.7%가 되어 輸出額이 增加함에 따라 原料別 商品과 雜製品輸出이 크게 伸張하였다.

2次計劃期에서 1967년에 輸出額 320.2百萬弗중 化學製品輸出은 2.4百萬弗로서 0.7% 機械類輸出은 14.2百萬弗로서 4.4% 原料別商品輸出은 101.4百萬弗로서 31.7%, 雜製品輸出은 97.2百萬弗로서 30.4%이던 것이 1971년에 輸出額 1,067.6百萬弗중 化學製品輸出은 14.9百萬弗로서 1.4%, 機械類輸出은 87.4百萬弗로서 8.2%, 原料別 商品輸出은 328.4百萬弗로서 30.8%, 雜製品輸出은 445.4百萬弗로서 41.7%가 되어 輸出額이 3배나 增加함에 따라 原料別 商品輸出은 제자리 거름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雜製品輸出은 10%, 化學製品과 機械類輸出은 2배나 各 增大하였다.

以上과 같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非工產品輸出이 壓倒的이기 때문에 工產品類別 輸出은 不振하였으나 60年代 前半期에 있어서는 工產品중 原料別 商品輸出이 主流이었으나 後半期에서는 工產品중 雜製品輸出이 主宗을 이루었다.

表 17. 工產品類別 輸出構造 變化推移

單位：百萬弗  
%

輸 出 額	經濟再建期 53~56		經濟安定期 57~61		1次計劃期 62~66		2次計劃期 67~71	
輸 出 額	39.6 (100.0)	24.6 (100.0)	22.2 (100.0)	40.9 (100.0)	54.8 (100.0)	250.3 (100.0)	320.2 (100.0)	1,067.6 (100.0)
化 學 製 品	1.9 (5)	—	—	0.6 (1.5)	1.0 (1.8)	0.7 (0.3)	2.4 (0.7)	14.9 (1.4)
機 械 類 及 運 搬 用 機 器	—	0.2 (1)	0.1 (0.5)	0.9 (2.2)	1.4 (2.6)	9.6 (1.8)	14.2 (4.4)	87.4 (8.2)
原 料 別 商 品 (織 維, 鐵 鋼 材, 製 材)	2.0 (5)	2.0 (8.1)	3.4 (15.0)	4.0 (9.8)	6.2 (11.3)	84.2 (33.6)	101.4 (31.7)	328.4 (30.8)
雜 製 品	0.2 (1)	0.2 (1)	0.6 (2.7)	0.8 (2.0)	2.0 (3.6)	59.2 (23.7)	97.2 (30.4)	445.4 (41.7)

資料：韓國銀行, 經濟年鑑, 1956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72

앞으로 3次計劃期인 1972년부터 1981년까지 主要輸出品構造 趨勢를 보면 1972년에 電子 및 部品輸出은 160百萬弗, 船舶 15百萬弗, 電氣機器製品 9百萬弗, 織維類 722百萬弗이던 것이 1976년에 電子 및 部品輸出은 770百萬弗, 船舶輸出은 300百萬弗, 電氣機器製品은 60百萬弗, 織維類輸出은 1,430百萬弗이 되고 1981년에 電子 및 部品輸出은 2,669百萬弗로서 16.7배, 船舶輸出은 1,325百萬弗로서 8.3배, 電氣機器製品輸出은 487百萬弗로서 54.1배, 織維類輸出은 2,563百萬弗로서 3.5배씩 各 增大하는데 그 중 成長이 가장 빠른 業種은 船舶이고 둘째는

表 18. 72~81年 主要輸出品構造 變化推移

單位：百萬弗

	1972	1976	1981	81/72
電子 및 部品	160	770	2,669	16.7
船 舶	15	300	1,325	88.3
電氣機器製品	9	60	487	54.1
織 維 類	722	1,430	2,563	3.5

資料：經濟企劃院，韓國經濟의 長期展望作成指針，1973.

電氣機器製品이고 세계는 電子 및 部品이고 끝으로 纖維類이다. 그러므로 70年代 主要輸出品目은 纖維類, 電子 및 電氣製品과 船舶이다.

以上과 같이 韓國貿易은 輸出의 量的擴大에도 不拘하고 慢性的인 貿易收支赤字나, 交易條件不利나, 市場偏重이라는 構造的 矛盾을 露呈하고 있다. 특히 經常收支의 慢性的인 赤字라는 國際收支의 基調的인 脆弱性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아랍地域의 石油價格引上和 美國의 農產物 外上販賣 不許 등을 勘案할때 더욱 赤字幅이 늘어날 것이 豫想된다. 이와 같이 輸出의 異例的인 急成長에도 不拘하고 貿易收支 改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輸出入交易條件이 改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交易條件이 改善되지 않는 것은 輸入原資材 保稅加工型 輸出이기 때문이다. 外貨稼得率을 無視한 量的擴大나 輸入原資材 單純加工商品에 대한 無差別 輸出支援은 工業用 鑛物 및 基礎原資材 輸出入이나 迂回度가 높은 技術商品 輸出에 比하여 交易條件이 不利하다. 韓國貿易은 輸出大宗品目的 輸出價格의 上昇率보다 그 原資材의 輸入價格의 上昇率이 빠르기 때문에 交易條件과 外貨稼得率이 惡化되고 있다. 韓國經濟는 貿易收支改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輸出額中心의 支援體制 때문에 限定된 國內資金 供給을 特惠的으로 使用하고 있으므로 內需産業에 대한 資金支援이 阻害되고 있어 損失을 보고 있다. 또 輸出偏重 支援으로 인한 內需産業의 阻害가 國際經濟에 대한 國內經濟의 吸收力을 弱화시키고 있다. 즉 輸出支援 때문에 內需産業의 發展이 阻宜되고 이 때문에 原資材뿐만 아니라 食糧까지 輸入에 依存하여 國際收支갭을 深化시키고 있다.

이 惡循環을 除去하는 方法은 輸出支援을 整理하는데 있다. 輸出支援을 整理하여 輸出政策을 從來의 量的擴大에서 質的向上에로 轉換하여야 한다. 즉 金額增大中心의 輸出에서 稼得率中心의 輸出에로 바꾸고 産業面에서 輸出原資材 單純加工輸出産業에서 內需産業의 充實에 의한 國際競爭力 強化와 高技術加工度産業으로 發展하여야 한다. 國際景氣의 好況下에서도 貿易收支改善을 이루지 못한다면 原資材波動, 景氣下降下에 輸出競爭이 더욱 치열해질 때 韓國 貿易條件은 더욱 憂慮된다. 輸出이 늘면 늘수록 輸出을 더욱 늘려야하고 交易條件이 不利한 것을 國內支援으로 메워야하는 構造下에서는 輸出이 늘수록 國內資源의 最適配分은 더욱 이그러질 수 밖에 없다. 輸出目標을 達成했다고 해도 韓國經濟의 構造的 改善과는 동떨어지

고 있다. 그러므로 輸出支援을 清算하고 稼得率中心, 對內均衡 優先의 産業構造를 마련하여야 한다.

#### IV. 結 論

解放後 韓國經濟는 40年代에 美國의 救護援助로 經濟的 不安을 克服하였으며 50年代에서는 美國의 經濟援助로 經濟的 破綻을 免하였고 60年代에서는 1/2次 計劃을 통하여 輕工業을 發展시켰고 70年代에서는 2次計劃을 통하여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을 輸出産業으로 發展시키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을 輸入代替産業으로 育成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韓國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産業構造의 變化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産業別 GNP 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第1次産業의 比率이 높아 經濟成長은 農水産業에 의하여 誘導하였으며 60年代에서는 第2次産業의 比率이 增大하여 鑛工業 특히 工業에 의하여 經濟成長을 主導하였고 70年代에서도 亦是 第2次産業의 比率이 크게 增加하여 經濟成長을 鑛工業 특히 工業에 의하여 誘導하고 있으며 80年代에서도 繼續 工業에 의하여 經濟成長이 主導될 것이다.

둘째 (1)鐵鋼—機械 (2)窯業, 土石—建設, (3)石油化學—纖維 및 化學加工消費財 (4)農林水産—食料品 및 傳統的 消費財 등 4個系列로 分類한 産業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4)系列産業에 發達하였으며 60年代에서는 (3)系列産業이 發展하였고 70年代에서는 (2)系列産業이 發達하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1)系列産業이 發展하게 될 것이다.

세째 輕工業 對 重化學工業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輕工業中 飲食品工業이 發達하였으며 60年代에서는 輕工業中 纖維工業이 發展하였고 70年代에서는 重化學工業中 石油化學工業이 發達하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重化學工業中 機械工業이 發展하게 될 것이다.

네째 消費財, 中間財 및 投資財別 工業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消費財工業이 成長하였으며 60年代에서는 消費財 및 中間財工業이 伸張하였고 70年代에서는 中間財 및 資本財工業이 成長하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資本財工業이 伸張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主導成長業種別 重化學工業構造의 變化를 보면 50年代에서는 運送用機器工業이 發達하였으며 60年代에서는 電氣機器工業이 發展하였고 70年代에서는 石油·石炭製品工業이 發達하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機械工業이 發展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輸入代替産業 및 輸出産業構造의 變化를 보면 50年代 後期에 消費財産業이 輸入代替産業으로 發端하여 60年代 前期에 輸入代替化가 完了하면서 輸出産業으로 登場하기 始作하여 60年代 後期에 輸出産業化가 終結되었으며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은 60年代 後期에 輸入代替産業으로 發端하여 70年代 前期에 輸入代替化가 終結하면서 輸入産業으로 登場하기 始

作하여 70年代 後期에 輸出産業化가 完了될 것이고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은 70年代 後期에 輸入代替産業으로 發端하여 80年代 前期에 輸入代替化가 完了될 것이다.

以上과 같이 產業構造의 變化에 따라 貿易變遷을 보면 40年代에서는 救護輸入爲主 貿易型이 있으며 50年代에서는 援助輸入爲主 貿易型이었고 60年代에서는 40年代 및 50年代의 輸入爲主 貿易型에서 輸出主導 貿易型으로 轉換하였고 70年代에서는 60年代의 輕工業製品 輸出爲主 貿易型에서 輕工業製品 및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製品 混合輸出 貿易型이 되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勞動集約的인 重化學工業製品 輸出爲主 貿易으로 變遷하게 될 것이다.

貿易構造의 變化中 첫째 財貨 및 用役別 輸入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商品輸入主導型 貿易이었으나 60年代에서는 商品輸出主導型 貿易이었고 70年代에서는 商品 및 用役輸出混合型 貿易이고 80年代에서는 商品輸出入均衡型 貿易으로 移行될 것이다.

둘째 輸出入額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輸入超過過重型 貿易이던 것이 60年代에서는 輸入超過緩和型 貿易이었으며 70年代에서는 輸入超過減少型 貿易이 되고 있고 80年代에서는 輸出超過漸增型 貿易이 될 것이다.

세계 輸出入依存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輸入依存度增大型 貿易이던 것이 60年代에서는 輸入依存度減少型 貿易이 되었으며 70年代에서는 輸出依存度增大型 貿易이 되고 있고 80年代에서는 輸出入依存度均衡型 貿易으로 될 것이다.

輸入貿易構造의 變化中 첫째 財源別 輸入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에서는 美國의 救護援助에 의한 輸入主導型 貿易이던 것이 50年代에서는 美國의 經濟援助에 의한 輸入主導型 貿易이 되었으며 60年代에서는 借款에 의한 輸入主導型 貿易이 되었고 70年代에서는 輸出에 의한 輸入主導型 貿易이 되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輸出과 輸入이 均衡되는 輸入型 貿易으로 變遷하게 될 것이다.

둘째 形態別 輸入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消費財 輸入主導型 貿易이던 것이 60年代에서는 原資財 輸入主導型 貿易이 되었고 70年代에서는 資本財 輸入主導型 貿易이 되고 있으며 80年代에서는 技術도가 높은 資材 및 資本財 輸入混合型 貿易으로 移行될 것이다.

輸出貿易構造의 變化中 첫째 形態別 輸出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에서는 軍政에 의한 一般輸出主導型 貿易이던 것이 50年代에서 政府와 民間에 의한 一般輸出主導型 貿易이 되었으며 60年代에서는 保稅加工輸出主導型 貿易이 되었고 70年代에서는 一般輸出 및 保稅加工輸出 混合型 貿易이 되고 있고 80年代에서는 民間에 의한 一般輸出主導型 貿易으로 變遷하게 될 것이다.

둘째 產品別 輸出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에서는 農水產物 輸出爲主型 貿易이던 것이 50年代에서는 鑛產物 輸出爲主型 貿易이 되었으며 60年代에서는 工產物 輸出急增型 貿易이 되

있고 70年代에서는 工産物 輸出偏重型 貿易이 되고 있고 80年代에서는 工産物 一邊倒輸出型 貿易으로 發展하게 될 것이다.

세계 輸出에 의한 誘發效果構造의 變化中 ①輸出에 의한 生産 및 所得誘發效果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生産 및 所得誘發效果極少型 貿易이던 것이 60年代에서는 生産 및 所得誘發效果漸增型 貿易이 되었으며 70年代에서는 生産 및 所得誘發效果急增型 貿易이 되고 있고 80年代에서는 生産 및 所得誘發效果加速型 貿易으로 變遷하게 될 것이다.

②輸出에 의한 輸入誘發效果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輸入誘發效果極少型 貿易이던 것이 60年代에서는 輸入誘發效果漸增型 貿易이 되었으며 70年代 및 80年代에서는 輸入誘發效果增大型 貿易으로 移行될 것이다.

내제 工産品類別 輸出構造의 變化를 보면 40年代 및 50年代에서는 雜製品 輸出主導型 貿易이었으나 60年代에서는 雜製品 및 原料別 商品輸出混合型 貿易이 되었으며 70年代에서는 原料別 商品輸出主導型 貿易이 되고 있고 80年代에서는 原料別 商品 및 機械類 輸出混合型 貿易으로 發展하게 될 것이다.

以上 考察에서 現在 韓國의 經濟與件으로 보아 産業構造는 農業보다 工業, 工業中 輕工業보다 重化學工業, 重化學工業中 資本集約的 重化學工業과 資源消費的 重化學工業보다 勞動集約的 重化學工業이 有利하나 앞으로 資本 蓄積이 進行이 되면 資源消費的 重化學工業보다 資本集約的 重化學工業이 有利하고 資源消費的 重化學工業은 輸出重化學工業을 支援하는 範圍內에서 建設하여야 한다.

그리고 對外貿易에서는 中間財 및 資本財의 國産化率을 提高하여 輸入을 抑制하는 同時에 國際收支의 改善과 所得 및 雇傭의 增大, 外貨稼得의 提高 등을 促進시키는 製品을 積極的으로 輸出시켜야 하며 輸出偏重支援으로 인하여 內需産業의 發展이 阻害되어 輸入을 加速시키는 惡循環을 止揚하기 위하여 輸出貿易에 있어서 量的擴大보다 質的向上으로 轉換하여야 한다.

# Relations of Industrial Structure and Trade Structure in Development stages of the Korean Economy

**Chun, Ung-youl**

## **Summary**

Korea faced economic ills caused by turmoil after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In spite of severe contraction in industrial production, the nation was able to survive without suffering from economic crisis, mainly due to the economic assistance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A great portion of that aid money was spent for import of consumption goods such as food, clothing, and medicine.

Moreover, Korea had its damage to the economy caused by the Korean War in June 1950. Despite runaway inflation, she faced her economy to near collapse if it had not been for foreign aid and allied support which consisted mostly of consumer goods. Therefore, the economy in that period was characterized by high dependency on foreign aid.

The First Five-Year plan, aimed at attaining a high economic growth with price stability, was implemented from 1962, and the Second Five-Year Plan followed from 1967. Basic objectives of the two plans were to build a foundation for attainment of self-supporting economy, and to achieve industrialization through modern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During the first plan period the energy industry, including coal and electricity, and basic key industries including fertilizer, cement, oil refining, etc. were developed along with high industries, mainly producing consumer good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including steel, machinery, petrochemical industry, etc. were to be developed intensively during the second plan period.

Light industries producing mainly consumer goods in the 1960's were converted into export industries, and import substitution of major commodities was attained by the develop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he successful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1960's created a domestic industrial base on which such sophisticated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s cast steel, special steel, electronics, shipbuilding and precision machine industries can be converted to export production for a drastic increase of exports

in the mid-1970's.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in the 1960's was the drastic expansion of exports which consolidated the foundation for an export-oriented economy. The factor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xport-oriented economy. Restructuring of industries suitable to export expansion resulted in diversification of export commodities from agricultural and light manufacturing products to heavy or sophisticated items such as electronic equipment and ship.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was a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rough construction of export and key import-substitution industries. Industrial growth was accelerated and led to a high growth rate of the overall economy in the 1960's.

In conclusion, economic growth of the 1960's was mainly led by the expansion of labor intensive light industries, since the emphasis was given to development of this sector in view of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at period. Development of light industries has contributed a great deal to the expansion of employment and exports during the 1960's. That labor intensive light industry, however, has a limited capacity for growth, because of potentially small domestic market for the products and insufficient supply of raw materials and semi-finished goods.

With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last ten years, the Korean economy has achieved remarkably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export expansions.

The emphasis of the Thir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s laid on dynamic development of the rural economy, a dramatic and sustained increase in export, and the establish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he major strategy of that plan may be characterized as balanced growth of agriculture and industry, and growth through increased exports, in contrast to the unbalanced growth strategy of the First and Second Five-Year Plans, in which the top priority was given to industrial development.

Such a development strategy has the purpose of consolidating the basis for self-sustaining growth in the long run by advancing the low-productivity sectors such as agriculture and fisheries, which are expected to supply raw materials to the industrial sector, and also to create a demand for goods from that sector. Such measures would lead this country to the stage of self-sustaining economy, with improvements of industrial and export commodity structur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hipbuilding, metal, machine, petrochemical and other chemical industries with a great deal of linkage and import substitution effects. Throughout the 1970's the Korean economy will undergo reorganization of industry by promoting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in order to propel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Such industries as steel, special steel and flexible copper, heavy machinery, and shipbuilding primarily have to be developed as strategic industries for attaining an industrial basis to promote improv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and expansion of export industries.

Shipbuilding and steel industries will be favored as the key industries to be developed for the 1970's because of their contribution to the evolution of industrial structure, export expansion, defense development and linkage effects on machinery industry. The iron and steel complex which is under construction at present will be gradually expanded to the level which will completely substitute the import requirement for iron and steel, and further will greatly expand exports.

Export expansion aimed at improvement of balance of payments aids economic development by supplying indispensable foreign exchange, stimulating related export industries, introducing and developing new technology, and increasing employment.

The Korean economy will reach a new plateau in the early 1980's when we will have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nd the successful attainment of export target. The industrial sector in the 1980's would continue to lead economic growth and its growth would, in turn, be backed up by expanded exports. The structur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will be improved significantly with its shift toward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s the products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become the major portion in the composition of export commoditie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would contribute the large percent to manufacturing output. Korean exports would mark \$10 billion in 1981. Of those export commodities, the composition of manufactures, especially heavy and chemical goods, would gradually increase throughout the 1980's.